

'조세현의 다문화가족 사진전' Dream Family



드 림 패 밀 리



낯선 문화지만 한국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사는 결혼이주여성들...
안타깝게도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 친정을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런 결혼이주여성들
에게 가족과 함께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은 2007년부터 지원해왔다.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은 단순히 친정을 방문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과정은 낯선 한국문화
로 힘들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정서적인 치유를 하는 시간이자 남편과 자녀들
이 아내와 어머니를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만남의 과정을 조세현 작가가 사진으로 담았다.

드림팩토리

● 취지

한국여성재단은 2007년부터 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의 친정 방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친정을 방문하는 과정에 조세현 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조세현 작가와 함께하는 사진전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다양한 국적, 가족,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함

● 개요

- 일·장: 5월 30일~6월 3일

본오른식출판기념식 5월 30일 오후 5시 개최예정

- 장 소: 롯데백화점 본점 갤러리

- 전시명: 조세현의 다문화가족 사진전 "Dream Family"

- 전시내용: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친정을 방문하게 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여정', 그리고 그 후 변화된 가족의 모습

본 다문화가정의 긍정적 이미지를 이끌어내고자 유명 연예인들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촬영한 사진 전시 예정(선-정혜연, 티아라, 강다니엘, 차인표 등 예정)

드림팩토리

●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작품 전시	30점 이내 작품 전시
오른식 출판기념식 개최	사진촬영에 참여한 연예인을 비롯한 관계인사를 참여
다문화가정 가족초대	사진전의 주인공인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는 이벤트진행

● 기대효과

1. 결혼이주여성의 내적 어려움과 자존감 향상
2. 다문화 사회의 소통에 기여하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 이미지 확보
3. '사진'을 통해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 마련

드림패밀리

● 홍보효과

1. 유명 연예인의 사진촬영과 오픈식 참여로 인한 언론노출

예: 천사들의 편지



(2) 사진전 진행과정에 관한 실시간 SNS 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온라인 노출

- 한국여성재단 SNS 운영현황: 블로그(타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 중
- 조세현 사진작가 트위터 운영 중

(3) 롯데화점 본점·이용자·다문화가족가족초대행사등을 통한 오프라인노출

드림패밀리

● 요청사항

1. 요청내용: 전시회 사업비 지원

1) 다문화가족 사진전 초대 이벤트

- 취지: 지방에서 주로 농사를 짓는 다문화가족에게 사진전 방문과 더불어 서울의 주요 명소를 방문하는 기회제공
- 지원내용: (1) 사진전 방문과 서울명소 여행 경비
(2) 가족사진 선물

2) 연예인과 다문화가족 아이들 사진촬영 지원

- 취지: 연예인과의 사진촬영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사진전의 취지를 알림
- 지원내용: 사진전 촬영을 위한 아이들 교통 및 식비 등 경비지원

3) 결혼이주여성에게 예스리코더 화장품 선물

- 취지: 사진전 초대로 방문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선물 제공
- 지원내용: 사진전의 주인공인 결혼이주여성 35명

2. 지원금액: 30,000,000원(다문화가족 화장품 선물 제외)

3. 후원사 명기

- 포스터, 팸플렛, 각종 홍보물에 후원사 명기

아
름
다
운
사
람

조세현 사진작가



조세현 작가는

2009년부터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의 친정을 방문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들의 모국 방문에 동행하기도 하고 집을 방문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친해졌는데, 일전엔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 사는 이주 여성의 집을 찾아가 찍기도 있다. 내가 이 작업에 의미를 두는 것은 사진작가 조세현의 시각으로 우리 국민에게 현재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여성신문 2012년 03월 09일자 신문기사 인터뷰 중-

한국여성재단 소개



삼일투쟁결연대상 여성부문대상

여성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공익재단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우리 딸들에게 밝은 세전년을 연다"는 가치로 각계각층의 리더와 124개 여성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



성북학예학교육 인형극공연



100인 기부 릴레이

2009년 제1회 삼일투쟁결연대상 여성부문대상 수상

한국여성재단은 모금 및 지원사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과 함께 하여 투명하게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주여성가족 진형방문



일터나눔

딸들의 희망을 만드는 지원활동

성형동사회문화조성활동지원, 여성리더십향상지원, 여성복지향상지원, 사회복합문화 확산지원 등 남녀구별 없이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원합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귀사의 희망파트너, 한국여성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기획홍보팀
- 연락처 : 02-336-6463 / 6453
- 담당자 이메일: 명진숙 팀장 jinslux@hanmail.net
백경원 대리 jandacool@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womenfund.or.kr>

 한국여성재단
KOREA WOMEN'S FOUNDATION

다문화가정사진전 기획 1차(안)

작성: 2012년 3월 12일

□목표

1. 다문화가정사진전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다문화가족'의 모습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
2. 출신국가, 세대의 차이를 넘는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통해 모금행사와 결부하여 진행

□작품촬영 진행현황 (단위: 가족, 2009~2011년)

(1)총괄표

국적별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몽골	총계
2009	7							7
2010	2	2	4	10	1		1	20
2011		3		6		1		10
총계	9	5	4	16	1	1		37

(2)촬영장소별

촬영장소별	모국가가족방문 촬영			한국촬영		
연도별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가족수	7	6	3	0	14	7
총계		16			21	

(3)가족거주지역별

지역별	강원 횡성	경기 부천	경기 안산	경기 하남	전남 신안	전남 여수	전남 영암	전남 부안	전북 익산	전북 정읍
소계	7	3	1	1	5	2	1	1	1	1
총계	7		5			9				2

지역별	대구	울산	제주	충남 공주	충북 보은	충북 제천	충북 청원	충북 충주	총계
소계	1	1	3	1	1	4	1	2	37
총계	2		3	1		8			

□진행계획

1. 추가사진촬영

-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획촬영 : 연예인과 함께 촬영하여 다문화가정사진전의 대중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
- 1회 촬영: 약30-40명의 다문화가정 아동 섭외, 연예인 5명-10명 섭외 필요

2. 사진전 구체기획

진행시기: 5월 27일(일)~6월2일(토)까지, 일주일동안 진행

(2)장소: 8월 8일(수)까지

장소: 8월 8일(수)까지

장소: 8월 8일(수)까지

장소: 8월 8일(수)까지

장소: 8월 8일(수)까지

장소: 8월 8일(수)까지

장소: 8월 8일(수)까지

장소: 8월 8일(수)까지

MBC 뉴스 8시

100% 100%

4월 4일

가장 먼저 1회

MBC

2월 2일

2월 2일

2월 2일

2월 2일

2월 2일

	일정가능	장소접근성	금액	연락처 및 담당자
로댕갤러리 (플라토)	연락안됨			1577-7595
세종문화회관 전시실 ①	불가능 -세종문화회관 기획전시기간임	미술관본관 광화랑 수시대관 종료 (신청공고에 따른 심사일정 있음)		02-399-1154(전시 대관담당)
② 인사아트센터	3층(100평) -전시가능	제3전시장	630만원(3,6,9,12 월) 690만원(4,5,10,11 월)	02-736-1020
시청광장(야외)	사용신고는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잔디광장 불가능 서편광장 가능	광화문/시청사이 대중접근도 높음	기본사용료 : 10 원/1㎡ · 1시간 (야간, 초과 사용 시 가산)	731-6825(서울특 별시 총무과)

(3) 프로그램 개요

작품제작 및 전시 (총30점 이하 구성)	화보집 출판 (소프트1,000권, 하드200권)	전시행사 -안내판물켓 -안내초대장 등 행사실무	가족초대 (현재 총37가족)	다른화가족의 서울투어
---------------------------	----------------------------------	------------------------------------	--------------------	----------------

3. 프로그램 세부기획 및 일정

(1) 전시작품제작

- 조세현 작가님 전시작품 작업 진행
- 전시회 총30개 이하 작품 준비
- 작품 프린트 및 작품액자화, 설치용역 등 필요

(2) 전시장 임대

- 실내, 야외에 따른 행사기획이 달라지게 됨
 - 가능한 장소를 찾아 시기를 맞추어야 그에 따른 기획일정 등이 구체화 가능
- ⇒한국여성재단 의견: 인사아트센터 진행 고려 요청드립니다.

(3) 화보집 출판

- 한 가족당 3컷씩 하더라도, 37가족이므로 총111컷이 책에 들어가게 됨.
- 되도록이면 촬영한 가족은 빠짐없이 사진으로 담고, 기록을 남는 것으로 기획

(4) 행사실무준비

- 안내 팸플렛, 초대장,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및 지원

(5) 전시행사

- 오프닝 세레모니: 약 30분~1시간 이내로 구성
 - 인사
 - 개회식 → 대도 2개, 2인 2개 ~ (open air)
- 촬영에 참여한 가족 초대 및 참여(가족을 초대하는 일정을 개막식에 할지, 별도로 할지 검토필요)
- 사진설명 및 조세현 작가 사인회 등
- 다문화가족 초청 행사

• 8월 24일 → 8월 25일 /
• 8월 24일 → 8월 25일 (open)
• 8월 24일 / 8월 25일 2개
↓
8월 24일
8월 25일

• 2000(8월) 4월 1일 /
4

~ 8월 24일: 2개

3/24 10:00 ~ 11:00 → 11:00 ~ 12:00

- 사진촬영에 참여한 가족 초대: 현재 총37가족(4인 1가족 기준으로 하더라도 148명)
- 다문화가족을 초청하여, 별도 프로그램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서울여행(프로그램화)
- 예: 남산, 인사동, 청계천 등.

■결정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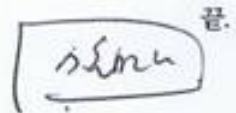
1. 시기

- 5월 마지막 주 시작시점(홍보를 위한 프레스 고려)을 공휴일이 나올지, 평일이 나올지 판단 필요
- 다문화가족의 경우, 각 지역에서 오셔야 하므로 평일에는 이동하여 참석하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
- 개막식이 평일에 이루어질 경우, 다문화가족의 초청은 별도로 공휴일등으로 배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2. 장소

- 준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작가님께도 익숙하고 현재 대관도 가능한 인사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

3. 예산: 현실적인 예산으로 조정검토 요청



• 5/29(20) → 5월 29일 (수요일) 17:00

• 3/28: 5월 28일 /

↓

5월 29일 /

5월 29일(수) : 17:00 ~ 19:00
오후

20:00 ~ 21:00 오후

20:00 ~ 21:00 오후

5월 29일(수) → 5월 30일(목) (20:00 ~ 21:00)

20:00 ~ 21:00 오후

5월 29일(수) 3:00 ~ 5:00
5월 30일(목) 3:00 ~ 5:00
5월 31일(금) 1:00 ~ 3:00
(5월 31일, 6월 1일)

5월 29일(수) : 17:00 ~ 19:00 오후
5월 30일(목) : 17:00 ~ 19:00 오후

5월 29일(수) 오후 3:00 ~ 5:00 (by 20:00)

• 예산 → 2012년도 예산에 포함

• 예산 1/1 예산

다문화가정사진전 기획 2차(안)

• 예산 400

2012

1000~1500만원
8000

작성: 2012년 3월 19일

주최

2012 3. ~ 4. ~

주최

2012 3. ~ 4. ~

1. 목표

- 다문화가정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통해 다양한 국적, 가족,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 사진전과 더불어 다문화가정과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이슬람의 장을 마련한다.

2. 개요

- 사업명: 다문화가정사진전(가칭)
- 예정일정: 5월 29일(화)~6월 4일(월) 총 7일간
- 예정장소: 1안) 세종문화회관, 2안) 인사아트센터

전시실	규모	일정	장소특이점	금액	비고
○ 세종 미술관 본관	495m ² (153평)	○ 불가능 - 기획전시기간	○ 교통편리, 많은 유동인구	○ 기본 1일 9시간 30분 사용 ○ 대관료 1일 600,000원, 1주 4,200,000원	○ 개관시간 11:00 ~ 20:30 ○ 평당단가 4000원(부가세 별도) ○ 02-399-1154 (전시대관담당)
○ 인사아트센터 (이탈산아트)	100 평 (공유면적포함)	○ 가능일정 - 1층 본전시장 6/27~7/17 - 2층 제2전시장 6/27~8/7 - 3층 제3전시장 5/23~5/29, 6/6~6/19, 6/27~7/24	○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지, 많은 유동인구	○ 1층 - 880만원(5월 970만원) ○ 2층, 3층 - 630만원(부가세포함, 5월 690만원)	○ 02-736-1020 ○ 02-399-1154 (전시대관담당)

○ 예산 1000만원

3.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세부내용	비고
작품 전시	○ 30점 이내 작품 전시	
화보집 출판	○ 소프트 1,000권, 하드 200권	
전시 행사	○ 개막식 개최(1시간 이내) ○ 주요 인사섭외 및 참석	개막식 개최일에 2~3가정 참여 필요
가족 초대	○ 사진의 주인공인 가족초대 - 사진전 초대, 서울투어	

• 예산 1000만원 : 2012년도 예산에 포함
(2012년도 예산 / 2012년도 예산) - (예산)

• 예산 1000만원 : 2012년도 예산에 포함
(2012년도 예산 / 2012년도 예산) - (예산)

4. 세부 사항

구분	세부내용	비고
(1) 추가촬영 : 연예인 촬영	○ 대중홍보를 위한 연예인과 다문화가정 아동들과의 사진촬영 - 약 30~40여명의 다문화가정 아동 섭외 - 연예인 4팀 정도 섭외 - 화보집에 들어가지 않다보니 5월 초에도 진행 가능	조세현 작가님이 섭외할 연예인 검토 후 섭외하기로 함
(2) 작품선택 및 설치준비	○ 작품 30점 이내 선택 ○ 작품 프린트, 액자화, 설치용역 등	장소는 직접 연락을 취해보기로 함
(3) 화보집 출판	○ 소프트 1,000권, 하드 200권 제작 ○ 총 111컷 사진 수록 - 한 가족당 3컷 기준, 총 37가족 111컷 - 가족의 사진과 이야기, 촬영기록 담기	
(4) 개막식 개최	○ 1시간 이내 구성 ○ 주요 인사 참여, 컷팅식 등 ○ 사진전의 다문화가정 2~3가족 참여필요	
(5) 가족초대	○ 사진전의 주인공 가족 초대 - 가족참여가 가능한 주말에 하도록 함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서울여행 등	
(6) 홍보물 제작, 각종 홍보	○ 홍보물 제작 - 안내 팸플렛, 초대장,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 홍보 - SNS 홍보: 한국여성재단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 방송 홍보: - MBC: 무한도전, 섹션 TV연예통신, 그날 - KBS: 3일, 러브인아시아, 연애가중계, 이야기쇼 두드림 - SBS: 한밤의 TV연예 - 언론 홍보: 언론보도 - 유관기관 연계해서 홍보 적극적으로 진행	무한도전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페이퍼 요청

5. 예산

- 작년에 책정한 예산은 111,408,000이고, 기획사 추가될 경우 2천여만원으로 총 1억 3천여만원이 필요
- 조세현 작가님이 삼성 측에 제안한 예산은 7천만원임. 추가 후원요청작업이 필요하거나 대체 방안 마련 필요

※ 기타: 예산지원 확정될 때까지 오픈하지 않도록 함

- 조세현 작가 출장일정: 3/28~4/18, 4/21~24일

□작품촬영 진행현황 (단위: 가족, 2009~2011년)

(1)총괄표

국적별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몽골	총계
2009	7							7
2010	2	2	4	10	1		1	20
2011		3		6		1		10
총계	9	5	4	16	1	1		37

(2)촬영장소별

촬영장소별	모국가족방문 촬영			한국촬영		
연도별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가족수	7	6	3	0	14	7
총계	16			21		

(3)가족거주지역별

지역별	강원 횡성	경기 부천	경기 안산	경기 하남	전남 신안	전남 여수	전남 영암	전남 부안	전북 익산	전북 정읍
소계	7	3	1	1	5	2	1	1	1	1
총계	7	5			9				2	

지역별	대구	울산	제주	충남 공주	충북 보은	충북 제천	충북 청원	충북 충주	총계
소계	1	1	3	1	1	4	1	2	37
총계	2		3	1	8				

진행 상황 → 12월 / 13일 3월 4일 -
↓
출판사

4월 15일 → 12월 ~ 13월 (value)
↓ list
12월 ~ 13월 2월

기획: 10월 4일 시작 2 다문화가정 화보집 제작 기획
7월 15일

■ 취지

○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가족을 꾸리고 사는 모습, 그리고 그녀들이 가족과 함께 진정을 방문하는 여정을 기록하여 우리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함

■ 컨셉

○ 한 가족 한 가족이 가정을 이루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모습을 담담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줌

■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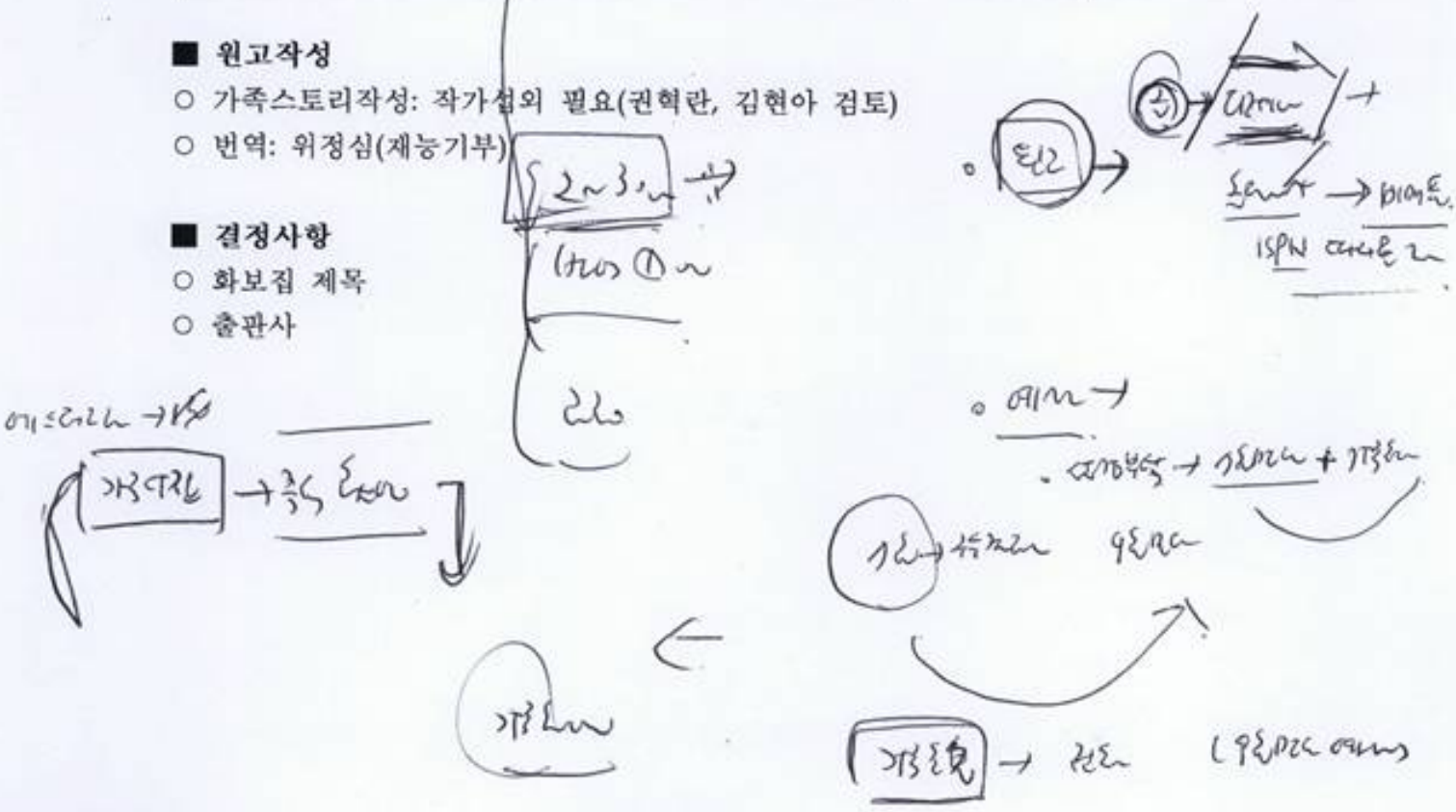
구분	내용	분량	비고
인사말	조형 이사장 인사말	2p	
	조세현 사진작가 인사말	2p	
전문가의 글	김현미 교수의 글 (현 다문화사회의 진단속에서 사진전이 갖는 의미)	2p	
사진과 가족스토리	사진과 가족스토리	70p	1가족 2p

■ 원고작성

- 가족스토리작성: 작가설의 필요(권혁란, 김현아 검토)
- 번역: 위정심(재능기부)

■ 결정사항

- 화보집 제목
- 출판사



조세현의 다문화가족 사진전 “드림패밀리”

1. 목표

- 다문화가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통해 다양한 국적, 가족,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 사진전과 더불어 다문화가족과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어울림의 장을 마련한다.

2. 개요

- 사업명: 조세현의 다문화가족 사진전 “드림패밀리”
- 일 정: 5월 30일(수) ~ 6월 10일(일), 총 12일간(설치 29일)
* 오프닝&출판기념식 5월 30일(수) 오후 5시
- 장 소: 롯데백화점 본점 갤러리(12, 14층 → 안내는 12층으로)

1/5/2 & 6/3

3.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세부내용	작가님과 확인필요
오프닝&출판기념식	○ 5월 30일(수) 오후 5시~6시 ○ 테이프컷팅, 사진전&화보집 설명 ○ 후원사, 사진의 주인공인 연예인, 가족, 주요 인사 초대 ○ 오프닝에 2~3가정 참여 필요	
전시 행사	설치 5.29일 13:00~24:00 철수 6.10일 18:00~20:00(전시마지막 날은 18:00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순회전시 예정일정 - 미정 - 대전점 10월 예정	○ 서울일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함
가족 초대	○ 사진의 주인공인 가족초대 - 사진전 초대, 점심식사	

○ 5월 30일(수) 오후 5시 / 12층 /

개최 장소 → 롯데백화점 12층

주최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기업
주최/후원
- 1 -

4. 세부 사항

구분	세부내용	진행현황/비고
(1) 추가촬영 : 연예인 촬영	○ 대중홍보를 위한 연예인과 다문화가정 아동들과의 사진촬영 - 살레시오: 8살~초등1학년까지 15인 가능 (옆 다문화센터는 거의 필리핀 아동위주임) - 코시안의집: 전연령대의 아동 있음 -> 연령별, 성별, 나라별 구성을 맞추도록 함 -> 아동들에게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 선물 ○ 연예인 4팀 정도 섭외 - 화보집에 들어가지 않다보니 5월 초에도 진행 가능 ○ 확정된 연예인 - 선·정혜영 부부, ○ 연예인섭외 불참입장 확인 - 한혜진, 유아인, 이민정, 2NE1	조세현 작가님의 섭외요청 필요
(2) 작품선택 및 설치준비	○ 작품 30점 이내 선택 ○ 작품 프린트, 액자화, 설치용역 등	
(3) 화보집 출판	○ 소프트 1,300권, 하드 200권 제작 - 영문판 한정제작 ○ 총 111컷 사진 수록 - 한 가족당 3컷 기준, 총 37가족 111컷 - 가족의 사진과 이야기, 촬영기록 담기 - 연예인은 안 들어감	가족스토리 1차 작성 완료 2차 작업 진행필요
(4) 오픈식&출판 기념식	○ 5월 30일(수) 오후 5시~6시 ○ 주요 인사 참여, 컷팅식 등 ○ 사진전의 다문화가정 2~3가족 참여필요 ※ 식순 및 참석요청리스트 4page 참조	참석 요청할 대상 -공문발송, 참석요청 5/7 -초대장 발송 5/11
(5) 가족초대	○ 사진전의 주인공 가족 초대 - 가족참여가 가능한 주말에 하도록 함 ○ 사진전 구경, 백화점에서의 점심식사(11 혹은 12층), 기념품, 사진액자 선물	따로 서울여행 등의 일정을 잡지 않음

구분	세부내용	진행현황/비고
(6) 홍보물 제작, 각종 홍보	○ 홍보물 제작 - 안내 팸플렛, 초대장,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 홍보 - SNS 홍보: 한국여성재단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 방송 홍보: - MBC: 섹션 TV연예통신 - KBS: 3일, 러브인아시아, 연예가중계, 이야기쇼 두드림 - SBS: 한밤의 TV연예 - 언론 홍보: 언론보도 - 유관기관 연계해서 홍보 적극적으로 진행	홍보물 디자인을 위한 대표사진 선택 필요

5. 예산

- 작년에 책정한 예산은 111,408,000이고, 기획사 추가될 경우 2천여만원으로 총 1억 3천여만원이 필요
- 조세현 작가님이 삼성 측에 제안한 예산은 7천만원임. 추가 후원요청작업이 필요하거나 대체 방안 마련 필요
- 확인사항
 - 에스티로더 소통사항 확인
 - 현 재정규모에서 예산편성 검토, 재조정(참고: 예산안)

■ 오픈식&출판기념식 세부식순과 참석리스트

- 사회자: 1안) 최광기, 2안) 진양혜
- 공간활용

구분	활용
12층	○ 윈도우갤러리 앞 테잎컷팅 ○ 12층에서 참여자 대기
14층	○ 오픈식&출판기념 축하 ○ 케이터링 설치

- 식순

구분	소요 시간	내용	등장인물
대기	-	> 참여자들 12층에 대기, 인사	
테잎컷팅	5'	○ 사회자의 간단한 설명, 참석자 소개, 컷팅식 > 윈도우갤러리 앞에서 컷팅진행 ※ 컷팅식 완료 후 14층 이동 안내	조형, 조세현, 다문화가정, 주요인사(연예인, 관계기관 등) 총 10인 이내
2층 이동	1'	>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	
인사말	3'	○ 개최의 취지와 인사말	조형
전시소개&화보집설명	7'	○ 전시소개와 감사인사	조세현
감사인사	5'	○ 다문화가정 감사인사	다문화가정
다과	~		

- 참석요청 리스트
 - 후원사(삼성, 삼성전자, 롯데백화점, 에스티로더)
 - 여성가족부, 남자 파트너단체, 다문화가정

조세현의 다문화가족 사진전 "드림패밀리"

1. 목표

- 다문화가정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통해 다양한 국적, 가족,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 사진전과 더불어 다문화가정과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어울림의 장을 마련한다.

2. 개요

- 사업명: 조세현의 다문화가족 사진전 "드림패밀리"
- 일 정: 5월 30일(수) ~ 6월 3일(일), 총 5일간(설치 29일)
* 오프닝&출판기념식 5월 30일(수) 오후 5시
- 장 소: 롯데백화점 본점 갤러리(12, 14층 → 안내는 12층으로)

3.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세부내용	작가님과 확인필요
오프닝&출판기념식	○ 5월 30일(수) 오후 5시~6시 ○ 테이프컷팅, 사진전&화보집 설명 ○ 후원사, 사진의 주인공인 연예인, 가족, 주요 인사 초대 ○ 오프닝에 2~3가정 참여 필요	
전시 행사	○ 본점 5일간 진행	○ 전시일정 연장가능여부 1안) 기존안대로 2안) 기간연기 - 6/10일까지 연장가능
	○ 전국순회전시 예정일정 - 안양점 <del>6.29~7.9</del> - 중동점 <del>7.20~31</del> - 청량리점 9.15~2주 ~~X~~ - 대전점 10월 예정.	○ 지역일정 확정여부 ○ 작가님 방문 가능일정 확인
가족 초대	○ 사진의 주인공인 가족초대 - 사진전 초대, 점심식사	

• 4월 4일 ~ 9일 ~

부대/대중/중대/1인

• 시행일정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2월 12일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중대 확인 확인 확인 확인

4. 세부 사항

구분	세부내용		작가님과 확인필요	일정/ 진행현황
(1) 추가촬영 : 연예인 촬영	아동섭외	○ 대중홍보를 위한 연예인과 다문화가정 아동들과의 사진촬영 - 살레시오: 8살~초등1학년까지 15인 가능 (옆 다문화센터는 거의 필리핀 아동위주임) - 코시안의집: 전 연령대의 아동 있음 -> 연령별, 성별, 나라별 구성을 맞추도록 함 -> 아동들에게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 선물가능 확인	○ 섭외 아동 수(30명)	일정에 맞춰 진행가능
	연예인섭외	○ 연예인 4팀 정도 섭외 - 화보집에 들어가지 않다보니 5월 초에도 진행 가능 ○ 확정된 연예인 - 선·정혜영 부부	○ 연예인 섭외 - 조세현 작가님의 섭외요청 필요	
	추가촬영	○ 5월 초	○ 일정 구체화	5월 초
(2) 작품선택 및 설치준비	작품선택	○ 작품 30점 이내 선택		34점 (2500원)
	작품설치	○ 작품 프린트, 액자화, 설치용역 등	○ 작품선택과 설치, 재단에서 어떤 협조가능한지 확인필요	(2500원) ↓

select (35)

출판권

디자인/인쇄/인사

280원 : 2500원

→

• 2024. 5. 20 ~ 2024. 5. 24 (20일)

② 연세대학교 → 2024. 5. 20 ~ 2024. 5. 24

③ 연세대학교 → 2024. 5. 20 ~ 2024. 5. 24

구분	세부내용		작가님과 확인필요	일정/ 진행현황
(3) 화보집 출판	가족스토리 수집	○ 사진촬영에 참여한 가족스토리 수집		가족스토리 1차 작성 완료
	재단 측 원고	○ 이사장 인사말, 전문가의 글		전문가글 섭외 4/27 작성은 화보초안 확인 후
	제작	○ 소프트 1,300권, 하드 200권 제작 - 영문판 <u>한정제작</u> ○ 총 111컷 사진 수록 - 한 가족당 3컷 기준, 총 37가족 111컷 (2~4컷 사이) - 가족의 사진과 이야기, 촬영기록 담기 - 연예인은 안 들어감	5/20 (화) /	5/20 (화) ~ 5/24 (토)
(4) 홍보물 제작, 각종 홍보	홍보물제작	○ 홍보물 제작 - 안내 팜플렛, 초대장, 포스터 제작	○ 홍보물 디자인을 위한 대표사진 선택 필요	5/20 (화) ~ 5/24 (토)
	언론·방송 홍보요청	MBC: 섹션 TV연예통신 KBS: 3일, 러브인아시아, 연예가중계, 이야기쇼 두드림 SBS: 한밤의 TV연예 언론 홍보: 언론보도		5/20 (화) ~ 5/24 (토)
	SNS 홍보	○ 재단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 조세현작가님, 트위터에 홍보요청	5/20 (화) ~ 5/24 (토)

한글/영문 simple 디자인 비용
2024. 5. 20 ~ 2024. 5. 24

↓
①, 2024. 5. 20 ~ 2024. 5. 24

이메일 : (5/2) ⇒ 2024. 5. 20 ~ 2024. 5. 24

↓
2024. 5. 20 ~ 2024. 5. 24

구분	세부내용		작가님과 확인필요	일정/ 진행현황
(5) 오픈식&출판 기념식	기획/진행	○ 5월 30일(수) 오후 5시~6시 ※ 식순 및 참석요청리스트 4page 참조		
	참여자섭외	○ 주요인사 ○ 사진전의 다문화가정 2~3가족 참여필요	○ 작가님 측에서 초대할 리스트	공문발송 참석요청 5/7 초대장 발송 5/11
	홍보	○ 언론보도 ○ 방송촬영 요청		• <u>사진전 기획</u> ↓
(6) 전시, 지역순 회전시	전시	○ 행사도우미 섭외 ○ 홍보물 배치		• <u>오전 10시 ~ 12시</u> • <u>의미/의상/의식</u> • <u>김민준</u> • <u>이민준</u>
	지역전시	○ 지역 백화점 갤러리에 작품설치 ○ 홍보물 배치, 행사도우미 섭외		
(7) 가족초대	○ 사진전의 주인공 가족 초대 - 가족참여가 가능한 주말에 하도록 함 ○ 사진전 구경, 백화점에서의 점심식사(11 혹은 12층), 기념품, 사진액자 선물		○ 따로 서울여행 등의 일 정을 잡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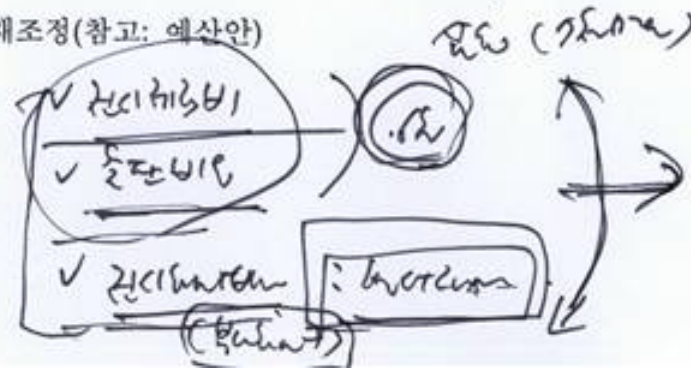
5. 예산

○ 삼성 측에 제안한 예산은 7천만원임. 추가 후원요청작업이 필요하거나 대체 방안 마련 필요

○ 확인사항

- 에스티로더 소통사항 확인
- 현 재정규모에서 예산편성 검토, 재조정(참고: 예산안)

2024/05/13
(수)



2024/05/13

Tape cutting 2024/05/13

10:00 (의상/의식/의상/의식)

exhibition → show

2024/05/13

2024/05/13 ~ 2024/05/14
2024/05/15 ~ 2024/05/16
2024/05/17 ~ 2024/05/18
2024/05/19 ~ 2024/05/20
2024/05/21 ~ 2024/05/22
2024/05/23 ~ 2024/05/24
2024/05/25 ~ 2024/05/26
2024/05/27 ~ 2024/05/28
2024/05/29 ~ 2024/05/30
2024/05/31 ~ 2024/06/01

■ 오픈식&출판기념식 세부식순과 참석리스트

- 사회자: 1안) 최광기, 2안) 진양혜
- 공간활용

구분	활용
12층	○ 윈도우갤러리 앞 테잎컷팅 ○ 12층에서 참여자 대기
14층	○ 오픈식&출판기념 축하 ○ 케이터링 설치

○ 식순

구분	소요 시간	내용	등장인물
대기	-	> 참여자들 12층에 대기, 인사	
테잎컷팅	5'	○ 사회자의 간단한 설명, 참석자 소개, 컷팅식 > 윈도우갤러리 앞에서 컷팅진행 ※ 컷팅식 완료 후 14층 이동 안내	조형, 조세현, 다문화가정, 주요인사(연예인, 관계기관 등) 총 10인 이내
2층 이동	1'	>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	
인사말	3'	○ 개최의 취지와 인사말	조형
전시소개&화보집설명	7'	○ 전시소개와 감사인사	조세현
감사인사	5'	○ 다문화가정 감사인사	다문화가정
다과	~	오후 6시에 종료	

○ 참석요청 리스트

- 후원사(삼성, 삼성전자, 롯데백화점, 에스티로더)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주요관계기관
- 날자 파트너단체, 다문화가정
- 사진·문화관련 파워블로거

가게
- 인스타
- Tape cutty
- 스톤
- 사진

에스티로더
• 후원사

5/2
5/3 =

5/6
5/3
5/4
5/5

□작품촬영 진행현황 (단위: 가족, 2009~2011년)

(1)총관표

국적별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몽골	총계
2009	7							7
2010	2	2	4	10	1		1	20
2011		3		6		1		10
총계	9	5	4	16	1	1		37

(2)촬영장소별

촬영장소별	모국가족방문 촬영			한국촬영		
연도별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가족수	7	6	3	0	14	7
총계	16			21		

(3)가족거주지역별

지역별	강원 횡성	경기 부천	경기 안산	경기 하남	전남 신안	전남 여수	전남 영암	전남 부안	전북 익산	전북 정읍
소계	7	3	1	1	5	2	1	1	1	1
총계	7	5			9			2		

지역별	대구	울산	제주	충남 공주	충북 보은	충북 제천	충북 청원	충북 충주	총계
소계	1	1	3	1	1	4	1	2	
총계	2		3	1	8				

Special Report ④ 만들어가는 다문화사회, 여성이 나서다
한국여성재단의 집중지원사업 3 결혼이주여성 & 다문화지원사업

명 2/6/24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현실에서 한국여성재단은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사회구성원처로
가 존중하고 수용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확대
되면서 많은 프로그램과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와 적응을 목적으
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여성재단 다문화지원사업이 목적과 내용에서 차별성을 갖고자 기울인
노력은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재단이 진행한 다문화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 '날(nal)자' 프로젝트
- 다문화가족 안전망구축 프로젝트
- 다문화가정 자녀학습지원 프로젝트 '위드멘토(with mentor)'
- '多문화 多함께' 프로젝트

성리 부각

* 다문화 명목의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성리) 역시도.

2009년 한국여성재단이 진행한 다문화지원사업의 특징은 먼저 이주민 여성 스스로가 우리 사
회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주체화를 위한 직업훈
련·창업훈련 프로그램 사업, 대상으로의 적응이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업, 이주여성 스스로가 만들어낸 아시아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마을(아이다마을)사업 등 당사
자인 이주민 여성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많았습니다.

둘째, 다문화 사업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주민 여성에서 나아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위드멘
토 사업, 남편 및 시부모 등이 함께 한 날(nal)자 사업, 다문화가족 안전망구축 사업이 있었습니
다. 또한 서포터즈와 멘토로 참여한 대학생들을 포함해 일반인과 지역사회까지 다문화 감수성 향상
을 위한 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셋째, 사전예방주의 관점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건강검진과 건강교육을 병행한 의료지원사업
은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0개 국어로 제작된 건강길라잡이를 통해
이주민 여성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정서지원 프로그램인 위드멘토 사업 역시 사회와 학교의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었습
니다. 부부 및 가족간의 이해를 통해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했던 다문화가족 안
전망구축 사업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고 실험적인 다문화사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3년째 진행된 이주여성과 가족
들의 친정방문사업은 매년 새로운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을 예방하
기 위한 안전망구축 사업은 2009년 2년차로, 대상자별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지원의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시도된 이주여성들의 공동체인 아이다마을은 새로운
community center로서 기대를 받으며 2년차 또 다른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주민
여성의 경제 공동체인 '떴다 무지개' 사업 역시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다문화지원사업에는 무엇보다 많은 파트너 단체와 기업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애
씀이 있었기에 다문화사업의 관점과 내용을 모색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사업
과 관련한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일회성 사업
을 지양했지만 1년 단위로 사업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현
장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파트너단체가 있기에 여성재단의 다문화지원사업은 진행중입니다.

* 김라자님이 동지/캠/센) 으로 보낸
* 여러 사진

홍보물 제작 일정

- 1) 포스터 초대장 우선 5월 16일 제작 완료, 16일 발송진행
- 2) 갤러리 사인물, 웹페이지, 팸플렛 5월 23일까지 제작완료
- 2) 웹페이지, 회전배너 5월 25일 오픈

1. 포스터

조세현의 다문화가정 사진전
The Family

2012. 5. 30 ~ 6. 10

LOTTE GALLERY 롯데백화점 본점 12, 14F
주최: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후원: 삼성그룹, 롯데백화점

2. 초대장

*1면(표지)

조세현의 다문화가정 사진전
The Family

2012. 5. 30 ~ 6. 10

LOTTE GALLERY 롯데백화점 본점 12, 14F
주최: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후원: 삼성그룹, 롯데백화점

*2면(내지)

The Family

1안)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결혼하였습니다.

서로에게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가족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낯선 아내의 친정도
아내에게 낯선 나의 본가도
모두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족을 당신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빛내주세요.

2면)

나에게 익숙한 한국이
배우자에게 그렇게 낯설고 힘들었을 줄 몰랐습니다.

막상 배우자의 나라에 가보니
나만 낯선 사람이고,
배우자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년시절의 추억이 깃든 고향마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가족이 있었던 만큼
배우자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가족을 당신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빛내주세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조 형
사진가 조세현

*3면(내지)
오픈식
2012. 5. 30(Wed) PM5:00

전시기간: 2012. 5. 30 ~ 6. 10
전시장소: LOTTE GALLERY 롯데백화점 본점 12, 14F

문의: 02. 336. 6364

*4면(뒷면)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는 기치로 각계각층의 리더와 124개 여성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한 여성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공익재단입니다.

(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www.womenfund.or.kr

2. 팸플렛-3단 구성 -> 총 6면

2면 조세현 작가의 말	4면 진정방문과 가족촬영	6면 진정방문과 가족촬영
3면 조세현 작가 소개	6면 한국여성재단 안내	1면 표지

■ 1면 표지

조세현의 다문화가정 사진전
The Family

2012. 5. 30 ~ 6. 10

LOTTE GALLERY 롯데백화점 본점 12, 14F
주최: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후원: 삼성그룹, 롯데백화점

■ 2면 전시회 취지

사진작가 조세현

'The Family'는 잔잔한 사랑이 숨 쉬는 아름다운 가족 사진첩입니다.

오래전 시집은 그녀는
우리 아이의 엄마
우리 남자의 부인
우리 엄마들의 며느리
우리 이웃들의 이웃
그녀들은 우리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한민족과 다문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한없이 무거울 수도, 한없이 가벼울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사진가로서 제가 할 일은 우리들 초상 안에 비쳐지는 영혼들의 솔직한 모습을 오늘 사진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지난 사년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아주 멀리서 시집와 살고 있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년에 걸쳐 동남아시아 구석구석 그녀들의 친정집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열 시간 넘게 차도 타고 물을 건너 찾아갔지만, 홍수 때문에 촬영을 포기하고 헛걸음을 치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만났던 우리들의 멀고도 가까운 사운덕들은 하나같이 인정 많고 친절하고 또한 밝은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족들 속에서 자라나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성정(性情)을 가졌겠는가를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냄새를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The Family' 전시회와 사진집의 촬영을 위해 귀한 시간과 그리고 속 깊은 인생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사진가 조세현

■ 3면 조세현 작가 소개&한국여성재단 소개

사진작가 조세현 소개

조세현 (1958~)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10년간 후진양성을 위하여 겸임교수로 출강하였으며, 각종 패션매거진의 포토디렉터로 활동했다. 1992년 올해의 패션 사진가상, 2009년 이혜선사진문화상, 2011년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평생 인물사진만을 고집하고 있는 조세현 작가는 80년대, 90년대에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을 촬영해왔고, 2000년부터 소외계층인 장애인, 입양아동, 미혼모, 이주노동자, 세계각지의 소수민족과 기아아동 등을 촬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서 남해인과 다문화가족 등을 촬영 중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를 맡아 인권과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활동하고도 있다.

■ 4면 진정방문과 가족촬영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의 진정나들이, <NAL자>

"아내가 시집와서는 한 석 달을 진정 가족들이 보고 싶다며 울더라고요. 말은 안 통해도 참 안쓰러웠죠. 진정 오니까 아내가 확실히 생기 있고 편안해 보여요. 여기 와 보니 말 통하는 사람이 아내뿐이라 답답한데, 제가 이렇게 답답한 걸 느끼니까 아내가 한국에서 살 때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역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딘티싱의 남편 김대규씨(2010년 날자 참여 가족)

날(NAL)자는 경제적·물리적 어려움으로 진정방문이 어려운 국제결혼 이주여성분들과 그 가족에게 진정방문의 기회를 선물하는 프로젝트로, 한국여성재단은 2007년부터 지원해왔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다문화가족 진정방문 지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필리핀, 베트남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베트남	베트남
33가족(129명)	26가족(91명)	34가족(121명)	30가족(102명)	34가족(124명)

■ 5면 진정방문과 가족촬영

날(NAL)은 'Now the Answer is Love'의 줄임말입니다.

서로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자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답을 찾아 떠나는 진정나들이... 그 과정을 조세현 작가가 담았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진정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사진으로나마 보고 싶어 가족사진을 찍습니다.

자주 못 오는 미안함 때문인지 남편은 부모님께 큰 절을 합니다.

진정을 다녀오더니 우리 남편, 더 살가워졌습니다.

■ 6면 재단 안내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는 가치로 각계각층의 리더와 124개 여성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한 여성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공익재단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대해 공인받은 재단입니다.

2009년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여성부문 대상 수상

한국여성재단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진정한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을 위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발전하는 사회풍토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의: 02. 336. 6364

후원: 국민은행, 079-01-0405-971

(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www.womenfund.or.kr

• 2022 → 2021

K1 테제몽콘 다우루앙(이나라)네

아주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나왔습니다. 낯선 봄 풍경이 따뜻한 햇살 한줄기에 금방 익숙해져 나른해지기도 합니다. 겨우내내 냉기가 봄눈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결혼 후 다시 찾아간 친정도 그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간 그곳의 언니, 조카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그리운 가족들이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던 그 거리만큼이나 서먹했던 그 마음이 예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간 우리 아이들 영주, 진주에게도 여기 태국에 엄마의 가족이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K2-1 제말숙(Je Mal suk) 네

결혼하고 제천 이곳에 왔을 때,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중국으로 배낭여행을 다녔던 그 행복한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연달아 암으로 돌아가시고, 막내 소하가 심장과 폐사이 판막에 구멍이 생겨 수술을 하고 그녀 자신은 아이를 조산하는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더랬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을 위해 남편과 함께 입을 커플룩을 마련한 그녀의 마음씀씀이가 느껴집니다. 다시는 제말숙씨와 가족에게 그런 아픔이 찾아오지 않기를 빌고 또 빌어봅니다.

K3-1 아만다 디존(박예지) (Amanda Dizon)네

한국을 여행하다 남편을 만났다는 소설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아만다 씨. 하지만 필리핀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 특히 언어의 차이는 그녀가 가족을 꾸리고 살기에 너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남편과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이겨내며 지금 그녀는 아들을 낳고 어엿한 가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속 그녀의 활박웃음은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얻은 소중한 행복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K4-1 최수련네

한창 고추수확시기라 모두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사진기 앞에 섰습니다. 조금은 무뎡뎡하지만 속 깊은 남편, 친딸처럼 잘 챙겨주시는 시부모님, 그리고 마냥 뛰어놀기 바쁜 두 아들. 최수련씨는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만나 한국에 오게 된 만큼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진처럼 꾸미지 않은 모습 그대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최수련씨의 바람입니다. 온 가족이 받을 때는 가운데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개구쟁이 아이들의 모습이 오늘도 최수련씨를 미소짓게 합니다.

K5 이홍선네

이홍선씨는 호기심에 나간 맞선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듬직함과 부지런함에 마음을 뗀 사랑 키우고 결혼을 했습니다. 교포였지만 그래도 나라간 문화적 차이가 그녀를 힘들게 했고 그중 시부모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일이 많아 부딪히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로에 대해 이해가 시작되고 아들이 생기곤 난후로 홍선씨는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부터 가족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기회가 잘 생기지 않았는데 이번 참에 사진도 찍고 가족 서로가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K6 이계운 네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이계운씨는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은 가끔 제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를 또 다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힘들 때면 언제나 그녀의 손을 잡아줄 딸, 그리고 제천 간디공동체의 어울림센터입니다. 그곳에 일하며 보내는 시간들, 서로 기댈 수 있는 딸이 있어 이계운씨는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K7-1n 수세테이그나시오(Susedteignacio)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사진 한 장, 전화 한 통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농사일은 그녀의 일이 아니었지만 허리 수술을 한 시어머니 대신 그녀가 남편을 돕게 되었습니다.

집안일과 농사일, 그리고 남편의 술 때문에 힘든 날들이 있었지만 그녀에게 예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너무 듬직하고 의젓한 아이들. 어른들처럼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부모님도 이제 남편보다 며느리 편입니다.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그녀편에 서서 응원군이 되어줍니다.

K1 웅웬 미토네

웅웬 미토씨는 전남 자은도라는 작은 섬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박정호씨와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 5년째, 지금은 자은도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중 어엿한 말언니로, 섬에 들어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살가운 조언을 해주는 '왕언니'로 불립니다. 아마 그녀가 처음 섬에 왔을 때 느꼈을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나 봅니다.

시부모들 역시 며느리 자랑에 신이 납니다. "우리 며느리, 똑똑하고 착하지. 아마 저 아이의 친정 식구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일게야."라며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은도 온 동네에 훈훈함을 선물한 웅웬 미토씨의 밝은 미소가 가을 저녁 황금물결처럼 아름답네요.

K8-3njpg 자은면 사람들

이웃 사촌이라고 하지요. 낯선 땅에 와서 금잔디아씨와 웅우네디밋땡씨, 웅웬미토씨는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국적과 문화가 다르지만 한국 자은도에서 살면서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수줍은 금잔디아씨는 이제 아이 낳고 엄마가 되면서 웅웁 미토씨를 언니처럼 따릅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적이 달랐던 그녀들은 이제 한국어로 수다를 나눕니다.

K9-1 가와바파 후미꼬, 김이슬, 쟈다 주마완, 찌라난, 오설매, 르으윽프영

K9-2 찌라난, 오설매, 르으윽프영

K10-2 김이슬네

김이슬씨는 2004년 지금의 든직한 남편과 결혼해서 예쁜 두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천면으로 이사를 간 후 쟈다씨와 함께 센터에서 한국무용을 배워 필리핀 무용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군청에서 지원하는 운전면허지원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자, 남편이 차를 사준 덕분에 요즘 차 운전하며 여행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김이슬씨는 다른 필리핀 분들과도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노래도 수준급이어서 행사나 장기 자랑에 나가면 상을 타오곤 한다네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K11-2 쟈다 주마완네

결혼 16년차 쟈다씨는 원주시에 살다가 남편의 직장 때문에 횡성군 둔내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우유공장에 일하고 있는데 성격이 매우 밝아 사람들과 잘 어울려 공장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센터에서 한국무용 및 필리핀 무용을 배워 전국적으로 유명한 결혼이민자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내조로 이렇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적극적인 내조 덕분이라며 이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진촬영이 있던 날은 매우 추웠지만 쟈다씨와 가족들은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K12-1 웅우엔티한네

올해로 결혼 8차 웅우엔티한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도 서툴고,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4년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별명이 '톡순이'입니다. 매사에 톱 소리 나게 잘 하며 직장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은 한국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어 능력시험 고급과정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와 남편, 자녀에게도 잘 하는 그녀는 동네 이주여성들의 말언니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동네 이주여성들의 사랑방같은 그녀의 집. 촬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도 동네 친구들이 찾아와 주었고 어색했던 촬영장은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편안한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K12-2 용우예티한, 누엔티베마이, 당티타이엔(김혜정), 웬티튀

K13-3n 비비씨도리잡(박은주)네

어린 이철이가 입고 있는 몽골옷은 이모가 만들어준 털조끼입니다. 제주도는 고려때 몽골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지요. 몽골의 여인이 먼 제주도에서 한국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몽골 지배의 아픔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자연스럽게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요. 시어머니 진정선씨도 문화가 다르지만 매사에 싹싹하고 수더분한 그녀의 모습에 그런 벽은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며느리'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비비씨도리잡씨는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아직 손자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외할아버지. 외손자의 손을 기쁘게 맞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K14-4 레티에넨(여민경)네

옥처럼 맑아라. 베트남 모국어(필리핀?)로 여민경씨의 이름뜻입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그녀는 동네에서 현명하고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사진촬영차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수확이 끝난 콩밭에서 시부모를 도와 콩을 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여민경씨없인 못살겠다며 며느리를 무척 아깁니다. 결혼 7년 차. 이제 그녀는 두 아이 성현이와 민길, 그리고 남편, 시부모와 함께 자연스럽게 가족사진을 찍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듬직한 엄마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 차트에 베트남 출신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내용에는 필리핀이주여성이라고 되어있음. 확인바람.

K15-1n 비수빈네

개량한복을 아주 자연스럽게 입은 그녀는 결혼 15년차인 필리핀 이주여성입니다. 경기도에서 살다가 10년 전에 이곳 제주도로 이사를 와서 성도 제주 '비'씨로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다문화가정의 2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와 엄마의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현재 그녀의 남편도 제주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랜 결혼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경험을 되살려 다문화가정의 행복을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T1-1n. 씨윙랏점짓네

세 딸의 엄마가 된 씨윙랏점짓씨를 만나러 부친으로 향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들어서자

작은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는 놀이터가 나왔고 그 놀이터 바로 앞집이 씨윙랏점것씨의 집이 있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준 세 아이들은 예쁜 분홍색 옷을 맞춰입고 사진찍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아이들의 학습도구 및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 눈에 띈 것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벽에 붙여 놓는 한국어 가나다와 그 옆에 태국어 철자를 배울 수 있는 유인물도 함께 벽에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도 배우고, 태국어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남다른 정성과 배려가 엿보입니다.

T2-1 풀번 폰피몬네

T3-1 논하드 니파&넌하드 남폰네

T4-2 사모아쪽 타나넛네

T5-1 분잠룬 탕사니네

T6-1n 암잠랏 솜넛네

V1-1n 호앙띠뚜란네

V2-1n 팜턴신 네

V3-1n 던티싱네(방문원고 없음)

2006년 한국에 와서 고향에 가본적이 없다는 던티싱씨. 7년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95세의 친할머니와 아버지, 언니 오빠들이 살고 있는 곳.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말도 잘 안통하는 한국에서 두 딸을 낳고 살면서 무척 힘들었지만 매일 야근하며 일하는 남편에게 미안해 친정에 가고 싶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다시 찾은 베트남. 그녀의 아이들이 엄마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또한 그녀가 한국에 돌아와 엄마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V4-1n 부티영아 네

V5-1n팜 니누옌(이지현)네

V6-0n 덩티란 네

V7-1n 부티리옌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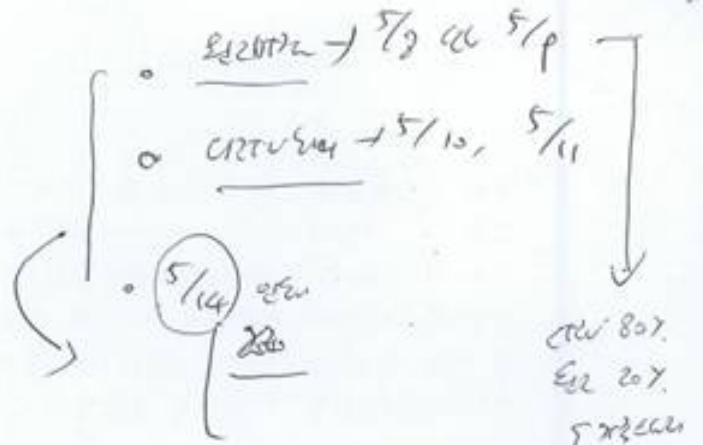
V8-1 도옌티화 네

• ሀገሪ

ሀገሪ

✓ ሀገሪ →

✓



(ሀገሪ)

ሀገሪ

0

ሀገሪ ሀገሪ

0

ሀገሪ

5

ሀገሪ

ሀገሪ →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 ሀገሪ ሀገሪ / ሀገሪ /

ሀገሪ

ሀገሪ - ሀገሪ

ሀገሪ

✓ ሀገሪ / ሀገሪ

① ሀገሪ / ሀገሪ

②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5/10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3000

ሀገሪ 3500

ሀገሪ 2500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ሀገሪ X

ሀገሪ

조세현의 다문화가족 사진전 "드림패밀리"
-화보집 제작을 위한 가족스토리 수집

○ 현황

- 34가족, 다문화가족의 이웃 1가족, 총 35가족

구분	동행자	비고
1. 씨윙갯점짓	태국: 강경희 국내: 명진숙, 김은경	사연있음
2. 돌번 폰피온	강경희	직접 통화
3. 논하드 니파	김수현	자료 받음
4. 논하드 남폰	김수현	자료 받음
5. 사모아족 타나남	김수현	자료 받음
6. 분질론 텃사니	김수현	자료 받음
7. 암잠갯 솜넛	김수현	자료 받음
8. 태제몽곤 다우루앙(이나라)	명진숙	사연있음
9. 아만다	명진숙	자료 받음
10. 이계은	명진숙	자료 받음
11. 최수련	명진숙	자료 받음
12. 이흥선	명진숙	자료 받음
13. 딘티싱	이화수	사연있음
14. 부티영아	이화수	자료 받음
15. 부티란	이화수	자료 받음
16. 팜티신	-	사연있음
17. 호앙띠두란	이화수	자료 받음
18. 팜티누연	김은경	자료 받음
19. 웅웁미토	최경진	자료 받음
20. 박효은(웅웁미토의 남편 박정호의 친구)	최경진	사연별로없음
21. 금잔디아	최경진	사연별로없음
22. 웅우네티밋땡	최경진	사연별로없음
23. 레티에넛(여민경)	명진숙	사연있음
24. 비비씨도리잡(박은주)	최경진, 명진숙	자료 받음
25. 비수빈	최경진	자료 받음
26. 김혜정(당티타이엔)	명진숙, 김은경	자료 받음
27. 가와비따후미코	명진숙, 김은경	자료 받음
28. 켄다 사크리스탄 주아완	명진숙, 김은경	자료 받음
29. 뽀티튀	명진숙, 김은경	자료 받음
30. 김이슬	명진숙, 김은경	자료 받음
31. 웅우엔티한	명진숙, 김은경	자료 받음
32. 웅우엔티배마이	명진숙, 김은경	자료 받음
33. 뽀티란	민은영	자료 받음
34. 부티리엔	윤난영	자료 받음
35. 도엔티화(도안티호와)	윤난영	자료 받음

1. 씨윙갯점짓

성명	씨윙갯점짓(67)	출신국	태국
촬영지	남자 태국 현지 국내: 부천 촬영 진행	촬영일자	2009/10/02 2010/03/28
가족구성현황	안상준(남편 '65), 안향원(2003), 안지원(2005), 안정원(자녀2008)	재입국년월	2002.04
최근 신청 방문 현황	2004.03	총 신청 방문 횟수	1
촬영동행자	태국: 강경희 국내: 명진숙, 김은경	남자 참여 현황	2009년 남자
사진주인공 정보	* 결과보고서 내용 중 말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서 많이 좋아했음 * 국내 촬영 동행 실무자 세 딸의 부모가 된 두분을 뵈러 부천으로 향했습니다. 주택가로 들어가 골목을 들어서자 작은 미끄럼틀과 그녀가 있는 놀이터가 나왔고, 그 놀이터 바로 앞집이 씨윙갯점짓 씨의 집이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준 세 아이들은 예쁜 분홍색 옷을 맞춰입고 사진찍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아이들의 학습도구 및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한국어를 아이들이 배울때 벽에 붙이고 가나다를 배우는 것을 붙여놓는 것과 동시에 태국어 철자를 배울 수 있는 유인물을 벽에 함께 붙여두셨다. 아이들이 한국어도 배우고, 태국어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님의 정성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가족 스토리	예쁜 분홍색 옷을 맞춰 입고 사진 촬영을 기다리고 있던 씨윙갯점짓의 세 자녀들, 방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지원어와 정원어가 한창 글을 배우는지 한글교구와 태국어교구가 나란히 벽에 붙어있습니다. 한글교구와 태국어교구가 나란히 벽에 붙어있는 씨윙갯점짓씨네는 '다문화가족'입니다.		

2. 풀변 폰피온

성명	풀변 폰피온(김정희)(73)	출신국	태국
촬영지	남자 태국 현지	촬영일자	2009/10/02
가족구성현황	한성민(남편'70), 한병우(2003), 한효정(자녀2006)	채취입국년월	2002.01
최근 친정 방문 현황	2005.12	총 친정방문 횟수	1
촬영동행자	강경희	남자 참여 현황	2009년 남자 참여
사전주인공 정보	전화연결 안됨. 사연없음 * 태국-친정 정보 서류에서 방콕-> 우든타니까지 비행기로 1시간, 그 다음에 차로 2시간 * 현재 김정희씨로 개명함(추천한 단체에 연락해서 확인한 사항) * 통화내용 비행기타고, 또 버스타서 8시간 이상을 가야했다. 아이가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것저것 보고 그랬지만 모두 피곤한지 잠들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막 눈물이 났다. 엄마 아빠가 반갑고, 생각나서 울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얘기 아빠도 그만 울어 했는데, 멈추질 않았어요. 기뻐서 울었어요.		
가족스토리	김정희씨의 친정집은 멀고멀었습니다. 방콕에서 비행기를 탄 후 버스로 한참을 간 후에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만나자 김정희씨는 눈물을 쏟습니다. 눈물을 멈추지 않자 걱정스런 남편 한성민씨는 그만 울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정희씨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녜요. 이거 기뻐서 우는 거예요."라며 한없이 읊니다.		

3. 논하드 니파

성명	논하드 니파(76)	출신국	태국
촬영지	남자 태국 현지	촬영일자	2009/10/03
가족구성현황	박상현(남편'72), 박소연(2002), 박민주(자녀2003)	채취입국년월	
최근 친정 방문 현황		총 친정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김수현	남자 참여 현황	2009년 남자 참여
사전주인공 정보	 * 2009년 경향신문 기사 언니 논하드 남편과 함께 모국 방문함 언니 남편이 일하러 온 이종수씨를 1995년에 만남. 식당에서 친척일을 돌던 남편은 식당에 자주 오던 이씨를 만나 사랑에 빠져,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1996년에 한국에 올. 2001년 겨울의 하얀 눈을 보고 싶다는 니파가 한국을 방문. 니파가 한국에 머무는 두달 사이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만난 사람이 남편인 박상현씨다. 박상현씨는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사람인데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신기했다'고 말함. 둘은 두 달 동안 연애했지만 니파는 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한 박상현씨는 2001년 12월 태국으로 가 니파와 결혼식을 올림.		
가족스토리	겨울의 하얀 눈을 보고 싶어 니파씨는 언니 남편씨가 있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 박상현씨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사람인데도 다시 보고 싶었다고 한다. 결국 니파씨가 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볼 수 없단 생각에 결혼을 결심한 박상현씨는 그 해 겨울 태국으로 달려가 니파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4. 넌하드 남퐁

성명	넌하드 남퐁(74)	출신국	태국
촬영지	남자 태국 현지	촬영일자	2009/10/03
가족구성현황	이종수(남편), 이연정(96), 이연주(자녀2005)	채택입국년월	2002.02
최근 친정 방문 현황	2005.06	총 친정방문 횟수	2
촬영동행자	김수현	남자 참여 현황	2009년 남자



사진주인공 정보

넌하드 니파의 언니

남퐁이 일하러 온 이종수씨를 1995년에 만남. 식당에서 친척일을 돌던 남퐁은 식당에 자주 오던 이씨를 만나 사랑에 빠져,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1996년에 한국에 올. 2001년 겨울의 하얀 눈을 보고 싶다는 동생 니파가 한국을 방문. 니파가 한국에 머무는 두달 사이 소개팅을 해주었고, 그 때 만난 박상현씨가 동생과 결혼. 찬타부리의 친정집에 도착한 남퐁, 니파 가족은 도착하자마자 마침 큰 손녀 연정의 생일이어서 외갓집에서 깜짝 생일파티를 준비해주셨음.

* 동행했던 실무자

(참고. 재단측 영상촬영이 꽃아갔었음. 영상물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음.
넌하드 니파와 넌하드 남퐁은 자매여서 같은 집에 방문했으므로 내용은 동일함.)
손녀의 생일파티를 외갓집에서 해주고 싶다고 해서 영상촬영을 한 것으로 기억함.
자녀들과 현지 친척 아이들이 대화가 통하지 않음에도 스스럼없이 노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헤어짐에 대해 너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음.
모든 음료수를 봉지에 열음과 음료수를 담아 빨대를 꽂아줌(봉지가 아주 저렴해서 그 빨다고 들었음.) 그런데 단점. 먹다가 도중에 멈출 수 없음. 음료수가 다 쏟아지기 때문에 겹어둘 고리가 있어야 함.

집안과 집 근처 개울가에서 함께 촬영하는 장면 촬영.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손자와 손녀를 대하는 감동적인 모습. 한글을 미리 배워서 이야기도 함. 함께 식사하는 모습. 뜨거운 피약발을 피하기 위해 함께 우산을 쓰고 손을 흔드는 즐거운 모습을 느낄 수 있었음.

가족 스토리

친정집에 도착해보니 큰손녀 연정의 생일을 챙겨주고 싶다면 친정식구들이 깜짝 생일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스스럼없이 안고 어울리는 이들은 정말 한가족입니다.

5. 사모아족 타나넵

성명	사모아족 타나넵	출신국	태국
촬영지	남자 태국 현지	촬영일자	2009/10/03
가족구성현황	안병열(남편), 안광선, 안수빈(자녀)	채택입국년월	2003.02
최근 친정 방문 현황	2006.08	총 친정방문 횟수	2
촬영동행자	김수현	남자 참여 현황	2009년 남자



사진주인공 정보

* 촬영 동행 실무자

집을 찾지 못해 헤매던 중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옴. 친정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길을 헤매는 우리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마중 나온 것이었음. 오토바이를 따라(가는 내내 오토바이 뒷자석에 앉은 사모아족 타나넵은 뒤를 보며 우리가 잘 오는 지 쳐다보았음.) 집에 도착. 많이 식구들이 북적북적 즐거움이 느껴졌음.
집 근처의 사원으로 가족들이 함께 갔음. 안병열씨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하였음. 아마도 가족과 친정가족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닐까.

가족 스토리

우여곡절 끝에 방문한 친정집... 문을 여니 식구들이 많아 집안이 북적입니다. 많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집 근처 사원에 간 남편 안병열씨. 친정가족들처럼 안병열씨도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합니다. 아마도 친정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한 것은 아닐까요.

6. 분잠론 땃사니

성명	분잠론 땃사니	출신국	태국
촬영지	남자 태국 현지	촬영일자	2009/10/03
가족구성현황	김성근(남편), 김정환(자녀)	체류입국년월	2001.12
최근 친정 방문 현황	2005.07	총 친정방문 횟수	2
촬영동행자	김수현	남자 참여 현황	2009년 남자
사진주인공 정보	* 2009년 결과보고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을거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가족들을 만나니 더욱 흥분되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 촬영 동행 실무자 오늘도 변함없이 가정방문을 위해 아침 일찍 출발. 몇 시간을 달려 겨우 분잠론 땃사니씨 덕 근처까지 온 것 같은데 집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근처에 용기종기 모여있는 분들에게 주소를 보여주며 물음. 그런데 이게 웬일. 그 사람들에게 암잠랏 송넛(2009년 함께 남자 방문한 이주여성)씨가 있었음.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었음. 오랜만에 한국사람을 만나 반기는 남편. 남편의 발이 면발이다. 태국사람 다 된 듯. 거기다 남편이 손님을 대접한다며 직접 칼을 들고는 서툰 솜씨로 코넛을 잘라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가족스토리	남편 김성근씨는 오랜만에 한국사람을 보게 되어 반가웠던지 촬영팀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며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열심히지만 웬지 서툰 솜씨로 코넛을 잘라주던 김성근씨 덕분에 촬영팀의 입안이 달달해졌습니다.		

7. 암잠랏 송넛

성명	암잠랏 송넛	출신국	태국
촬영지	남자 태국 현지	촬영일자	2009/10/03
가족구성현황	이규복(남편), 이종원, 이영주(자녀)	체류입국년월	2002.04
최근 친정 방문 현황	2004.03	총 친정방문 횟수	1
촬영동행자	김수현	남자 참여 현황	2009년 남자
사진주인공 정보	* 촬영 동행 실무자 우리를 보자마자 친정가족의 손을 꼬옥 잡고 나오신 암잠랏 송넛씨. 집 구경을 하던 중 친정 오빠(또는 동생) 되시는 분이 코코넛 나무에서 바로 딴 코코넛을 잘라 주셨음. 가정방문 때마다 주시는 코코넛은 덥고 습한 날씨 속에 지친 우리에게 달콤하게 목을 축여주었음. 또 다시 먼 길을 가야하는 우리에게 음료수병에 코코넛을 담아 안겨주셨음. 장인이론을 도와 가족에게 먹이를 주는 사위 이규복씨. 사위는 백년 손님이지만 오랜만에 찾아뵙는 이규복씨는 잠시나마 아들노릇을 하고 싶었던 듯		
가족스토리	1) 우리를 보자마자 친정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나온 암잠랏 송넛씨. 사위 이규복씨는 여행의 피로를 풀기도 전에 장인이론을 도와 가족에게 먹이를 주는데 한참입니다. 사위는 백년손님이지만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에 대한 죄송함을 만회하려는 듯합니다. 2) 집 구경을 하고 있는 촬영팀에게 친정 오빠는 코코넛을 나무에서 바로 따다 주었습니다. 코코넛은 덥고 습한 날씨와 촬영으로 지친 우리의 목을 축여주곤 합니다. 촬영팀이 코코넛을 좋아하는 것을 연결까요? 또 다시 먼 길을 가야하는 우리에게 음료수병에 코코넛을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8. 태재몽콘 다우루앙(이나라)

성명	태재몽콘 다우루앙(이나라)	출신국	태국
촬영지		촬영일자	2010/03/28
가족구성현황	이종석(남편), 이영주, 이진주(자녀)	재입국년월	
최근 진정 방문 현황	공주	총 진정 방문 횟수	
활동동행자	명진숙, 김은경	남자 참여 현황	2009년 남자
사진주연공 정보	2009년 남자 참여 		
	* 2009 결과보고서 내용: 당사자가 쓴 것 같지 않은 문장. 특별한 내용없음 * 홈페이지 너무 오랜 시간이라 조금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처음 보는 언니, 조카들이 낯 설기도 했지만, 예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다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인연 때문이란걸 새삼 느끼고 실감했습니다. 우리 애들 영주 진주한테 또 다른 가족이 여기 태국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도 또 다른 의미였고, 말로만 듣던 새로운 지식들을 일깨운 것도 또 하나의 수확이었습니다. * 촬영 에피소드 공주에서의 다문화가정의 촬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왕릉이나 문화재 앞에서 찍는건 오히려 인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소박한 변두리의 정취, 놀이터를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람은 쌀쌀했지만, 봄이 다가오는 풍경에 즐거운 가족들의 모습이 더해져 봄날은 더욱 따뜻했습니다.		
가족 스토리	친정방문이 어땠는지를 묻자 "친정을 방문해서 부모님을 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영주, 진주한테 태국에도 가족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서 친정방문이 저에게 큰 의미였어요."라며 환하게 웃는 이나라씨. 공주에서의 사진촬영이지만 굳이 왕릉이나 문화재를 찾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소박한 마을과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그리고 이나라씨 가족의 환한 웃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9. 아만다

성명	아만다	출신국	필리핀
촬영지		촬영일자	2010/05/02
가족구성현황	남편, 본인, 아들	재입국년월	2000.4
최근 진정 방문 현황	2011년	총 진정 방문 횟수	
활동동행자	명진숙	남자 참여 현황	남자 비참여자/ 재전 간디공동체 통해 가족섭외 및 방문
사진주연공 정보	남자 비참여자/ 재전 간디공동체 통해 가족섭외 및 방문 * 파트너단체 통해 직접 보내온 사연 친구들과 함께 한국이란 나라를 알고 싶어서 여행을 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어 현재 까지 살고 있다. 필리핀과 한국의 문화차이, 언어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다. 하지만 남편의 넓은 어량과 시부모님의 무한한 며느리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아들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저를 격려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시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 촬영 동행 실무자 부끄러움을 타는 듯, 조심스런 웃음을 짓던 그녀는 카메라를 맞이하자 화사한 봄 햇살과 함께 함박웃음을 던졌다. 사진조명을 위해 어리저리 옮기는 중에도 귀찮다는 내색 없이, 자신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한국이란 나라를 알고 싶어 친구들과 함께 온 여행에서 남편을 만나 한국에 뿌리내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모르고 문화차이도 있다 보니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한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우리 시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10. 이계은

성명	이계은	출신국	중국
촬영지	제천시 덕산	촬영일자	2010/05/02
가족구성현황	남편, 본인, 딸	체류입국년월	2007.4
최근 친정 방문 현황	2010년	총 친정 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명진숙	남자 참여 현황	남자 비참여자/ 제천 간디공동체 통해 가족섭외 및 방문
사진주인공 정보	남자 비참여자/ 제천 간디공동체 통해 가족섭외 및 방문 * 파트너단체 통해 직접 보내온 사연 중국에서 한번의 결혼 실패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나를 자극해 한국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여기서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남편이 몸이 불편하고 성격이 괴팍하다보니 아내를 자주 의심한다. 그 점이 나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다. 누리어울림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가장 행복하다. * 촬영 동행 실무자 처음엔 낯선 환경이었을 이땅에서 사람 좋은 웃음을 담아낸 모녀는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자였을 것 같다. 예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엄마와 딸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정'이 무엇인지...		
가족 스토리	한 번의 결혼 실패로 마음고생을 하던 이계은씨에게 한국남편과의 결혼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록 남편의 몸이 불편해 제가 일을 해야 하지만, 요즘 일하는 재미로 산다는 이계은씨는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11. 최수련

성명	최수련	출신국	중국
촬영지	시덕 고추밭(제천시 덕산)	촬영일자	2010/05/02
가족구성현황	남편, 본인, 아들 2, 시부모님	체류입국년월	2002.12
최근 친정 방문 현황		총 친정 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명진숙	남자 참여 현황	남자 비참여자/ 제천 간디공동체 통해 가족섭외 및 방문
사진주인공 정보	남자 비참여자/ 제천 간디공동체 통해 가족섭외 및 방문 * 파트너단체 통해 직접 보내온 사연 친정부모님이 할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로 국적을 찾아 모두 한국에 미리 나와계셨다. 저도 학교졸업 후 한국에 나오려고 여러차례 시도하다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어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 남편이 조금 무뚝뚝하긴 하지만 속깊은 사람이라 시부모님도 잘 챙겨주시고 가장 행복한 건 토끼같은 두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다. 촬영당일 한창 고추따기 바쁘다보니 시덕식구들은 꾸미지도 못하고 모두 작업복차림으로 고추밭에서 아쉬운 한컷을 남겼다. 지금까지 잘 말처럼 아껴주고 챙겨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촬영 동행 실무자 햇살 좋은 봄 날씨, 온 가족이 밭고랑이에서 열심히 김을 매는 곳으로 갔다. 밭을 매는 어른들과 그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벚꽃이 눈처럼 소담스럽게 내리는 속에 사진촬영에 익숙하지 않은 듯 부끄럼을 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개구쟁이와 사랑많은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가족 스토리	농촌의 봄은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촬영이 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따아할 고추가 산더미입니다. 비록 작업복 차림이기는 하지만 속 깊은 남편, 토끼 같은 두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에 아쉬움을 달립니다.		

12. 이홍선

성명	이홍선	출신국	중국
촬영지	시덕(제천시 덕산)	촬영일자	2010/05/02
가족구성현황	시부모, 시숙, 형남, 조카2, 남편, 본인, 아들	제약입국년월	2005.10.24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최근 6년간 진정을 간 적이 없음	총 진정 방문 횟수	1
촬영동행자	명진숙	남자 참여 현황	남자 비참여자/ 제한 간디공동체 통해 가족설립 및 방문
사진주인공 정보	* 파트너단체 통해 직접 보내온 사연 어린나이에 호기심에 맞선자리에 나갔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다. 남편의 동적함과 부지런함에 마음을 빼앗겨 사랑을 키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고포였지만 그래도 두 나라간의 문화적 차이가 가장 절 힘들게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과 의견차이었다. 허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계가 점점 좋아졌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당연히 저의 아들이 생기면서 부터다. 촬영시기가 봄이라 시골에서는 한창 바쁜 시기였다. 하여 시아버님께서는 밭에 갔다 작업복으로 촬영에 응했고 아이들이 셋이었던터라 자꾸 여기저기 도망다녀서 촬영이 조금 힘들었다. 전부터 가족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늘 시간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사람이 부족하여 찍지 못했는데 이참에 가족 사진도 찍고 가족과의 우애도 나누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 다. 감사합니다. * 촬영 동행 실무자 가족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했다. 햇살이 좋다며 밭에 일하러 나간 시부모님을 찾아 카메라 앞에 가족이 모였다. 할아버지의 손자를 향한 그듯한 눈빛, 씨앗을 심어 열매를 거두는 농사꾼의 마음이 느껴졌다. 밭에 나가 고추를 따던 시아버지를 모시고 헐레벌떡 외보니 이젠 아이 셋이여기저기 도망 다니며 장난을 칩니다. 아이들의 장난스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시아버지의 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가족 스토리			

13. 단티싱

성명	단티싱(88)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남자 베트남 현지	촬영일자	2010/08/09
가족구성현황	김대규(남편 69년생), 김가영(07년생), 김나영(09년생) 자녀	제약입국년월	2006.03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총 진정 방문 횟수	0
촬영동행자	강경희, 최경진	남자 참여 현황	2010년 남자
사진주인공 정보	2010년 남자  배우 장서희씨와 함께 동행하여 촬영. * 자기소개서 7년 전(2003년)전 어머니가 돌아가고, 95살 된 친할아버지와 아버지, 언니, 오빠, 동생들이 살고 있음.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단티싱과 가족들을 보고 싶어했음.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는데 딸이 안통하고 문화도 낯설어서 무척 힘들었다. 남편이 아픈 몸으로 아침 일찍부터 야근까지 하면서 어렵게 번 돈으로 진정에 가고 싶다는 말을 못했음. 대출금 내고 어린이집 보내면 돈이 없음 베트남에 다녀오면 안심이 될 거 같고, 진정 식구들에게도 덜 미안하고 한국생활에 더 열심히 살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베트남에 대해 알려주고 자랑하게 하고 싶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베트남 선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편: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음 * 신문 여성중앙 2010년 9월 1일자 장서희가 처음 방문한 단티싱의 한국 집에서는 주인공 단티싱이 'SBS '아내의 유혹' 구온재가 진짜 오는거냐'고 물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장서희는 4년 만에 방문한 단티싱의 진정집을 함께 방문하며 짧은 행복을 눈으로 보았다. 단티싱을 아내로 맞고 김대규씨는 '행복을 찾았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외갓집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뿌듯해 한다. 그런 마음의 남편이니 곁에서 봐도 아내와 아이들을 살뜰히 챙겨 주는게 보인다. 타지에서 온 아내에게 그리 친절하지만은 않은 게 한국 남자들이라는데, 그에 비하면 이 가족은 아주 좋은 케이스였다. '아내가 시집와서는 한 석달을 진정 가족들이 보고 싶다며 울더라고요. 말은 안 통해도 잘 안쓰러웠죠. 요즘도 잘 지내다가도 저녁에 하늘을 보고 있을 때면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진정 오니까 아내가 확실히 생기 있고 편안해 보여요. 저도 왕 대접 받으니까 처가가 좋긴 좋네요. 여기 와 보니 말 통하는 사람이 아내뿐이라 답답한데, 제가 이렇		

	게 답답한 걸 느끼니까 아내가 한국에서 살 때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역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 현지촬영 당시 동행했던 파트너단체 베트남의 건축양식은 좀 특이합니다. 장판이 아니라 알록달록 타일바닥, 높은 천정, 맛바람이 통하는 넓은 문... 더위와 습기에 대처하는 삶의 지혜이겠지요. 유달리 나를 따라다녔던 가영이의 외가집이라 그런지 저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제비집 음료수 등 10여가지 마실거리, 새우, 튀김만두같은 음식들, 두리안, 용과와 같은 다양한 열매과일들... 한국서 손님이 오셨다고 마을잔치를 벌이신 모양입니다. 늘 아내보다 먼저 아이들을 챙기는 자상한 대규씨도 처가에 와서 왕처럼 대접받는다고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실무자 의견 모두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면 우울하고 어려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만 상상하고 보면 오산입니다. 단티싱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어떤 가족보다 화목하고 행복한 단티싱 가족을 보며,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많은 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스타를 보며 열광하는 어린 아이같은 모습, 남편이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이라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들... 작지만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진을 통해 전달되길 바랍니다.
가족스토리	시집와서 석 달을 친정가족들이 보고 싶다며 울었다는 단티싱씨.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더 살뜰히 챙겼던 남편 김대규씨. 아내의 친절에 와보니 말이 통하지 않아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생각이 드니 괜스레 미안해집니다.

14. 부티영아

성명	부티영아(85)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남자 베트남 현지	촬영일자	2010/08/09
가족구성현황	장동현(남편, '66), 장정희(07), 장소희(09)	재입국년월	2006.09
최근 친정방문 현황		총 친정방문 횟수	0
촬영동행자		남자 참여 현황	2010년 남자
사전주인공 정보	2010년 남자 참여  * 자기소개서 한국에 와서 정희, 소희 남편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 온지 4년이 지났지만 고향 생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외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듣고도 가지못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실직 이후에 과일노점상을 하였으나 인근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 친정 방문은 꿈도 꾸지 못했다. * 추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하남시 국제 외국인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주)미래AK 취직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고향에 나이 많은 부모님과 5명의 형제자매들이 있음. * 신문 여성중앙 2010년 9월 1일자 ‘소희 엄마’ 부티영아는 “아내의 유혹” 민소희를 따라 딸 이름을 소희로 지었다”며 장서희를 내내 끌어안았다. 아예 휴지상자를 곁에 두고 눈물을 흘리는 말을 친정아버지가 물끄러미 쳐다본다. 스물 일곱의 두 아이 엄마에게 편견 많은 타지에서 생활은 이래저래 녹록지 않은 듯했다. 남편 장동현씨는 영거주중 곁에 앉더니 “내가 너무 못해 봤다”며 미안해한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못해 준 게 너무 많다고. “여기 와서 보니 베트남 문화가 우리랑 많이 다르네요. 장인이론도 청소랑 음식도 다 하고... 한국 남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무뎡게 보이는 남편에게 분위기 전환용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젊고 예쁜 아내 자랑 좀 해보라고. “우리 아내요? 눈썹미가 정말 좋아요. 음식도 잘하고 김치도 잘 담고요.” * 현지촬영 동행한 파트너단체 시골집. 하연 떠오르는 것이 거름냄새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없습니다! 정갈한 골목길, 집앞 텃밭에는 푸르게 자라는 고추와 같은 허브들.		

	온 마을에 향기가 날립니다. 한국서 동생이 왔다고 부모님, 이모님, 언니, 오빠, 그리고 그의 아내, 남편들, 조카들... 순식간에 엄청난 수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가족문화와 비슷합니다. 동현씨도 처가식구들과 많은 통하지 않지만 표정을 보니 이미 한식구네요. 평소 가부장적 동현씨, 가사일을 다 하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좀 달라져야겠다는 말을 할 만큼 아내와 아내의 나라, 아내의 가족을 이해하는 시간인것 같습니다. 베트남 요리의 필수품인 고수도 익숙하지 않지만, 베트남 커피는 쓴맛이 강해 하루에 한잔이상 마시기 힘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00식품에서 만든 믹스커피를 '노행이'라고 부르며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정서희씨가 노행이를 가져왔습니다. 노행이 커피한잔, 세상 다 얻은 듯한 행복감... * 실무자 의견 타지에서 엄마가 되면 엄마가 더 그림습니다. 부티영아에게는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친정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친척분들이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고도 가지 못하는 절절한 마음, 애뜻한 고향에 대한 마음이 친정에 방문하자 눈물이 쏟아져 휴지상자가 늘 함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여린 아내지만, 남편과 함께 정화, 소회를 키우며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눈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렇게 평온한 눈빛, 외할머니가 손녀를 안고 응시하는 단순하지만 가슴 벅찬 현장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가족스토리	1) 장인어른이 청소며 음식을 도맡아서 하시는 모습을 본 남편 장동현씨. "여기 와서 보니 베트남 문화가 우리랑 많이 다르네요. 장인어른이 청소랑 음식도 다 하고.... 한국 남성들은 안 그럴잖아요. 내가 너무 못했네요."라며 미안해합니다. 그래도 아내가 눈발미가 좋아 음식도 잘하고 김치도 잘 담근다며 자랑하는 장동현씨를 보니 애처가가 따로 없습니다. 2) '소화 엄마' 부티영아는 "아내의 유혹" 민소희를 따라 딸 이름을 소희로 지었다"며 장서희를 내내 끌어안습니다.

15. 부티란

성명	부티란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남자 베트남 현지	촬영일자	2010/08/09
가족구성현황	백상훈(남편 '60), 백승현(96), 백승일(08)	재입국년월	2007.11
최근 친정방문 현황		총 친정방문 횟수	0
활동동행자		남자 참여 현황	2010년 남자
사진주안공정보	2010년 남자 참여  * 자기소개서 친정 아버지는 당뇨가 심해서 신장에 염증이 있어도 치료가 어렵다고 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비 보내지도 못함. 친정아버지 살아생전에 손자를 보여 드리고 싶은 * 동참했던 파트너단체 부티란씨 가족방문에 저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억으로 정리할게요. 승현이는 오지 않았고 어린 승일이랑 함께 왔는데 승일이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부부의 시간을 위해 택시를 당당한 나는 10명에 가까운 아이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했습니다. 유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승일어도 엄마에게서 잘 떨어지지 않은 아이입니다. 승일이를 고실 수 있는 방안, 바로 풍선과 물놀이입니다. 그래서 우린 호텔방 욕조에서 아이들과 한바탕 물놀이를 벌이고 있는데 세면대 위에서 꾸벅꾸벅 조는 아이, 바로 승일이었습니다. 침대에 눕히면 다시 깨고, 물가에 데려다 놓으면 졸고, 결국 업어서 재웠지요. 어린나이에 엄마아빠 친해지기 시간을 보장하느라 무척 힘들었을 승일아, 씩씩하게 자라고 있지? 화이팅!!		
가족스토리	부티란씨의 친정아버지는 당뇨가 심해 신장에 염증이 있어도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친정아버지 살아생전에 손자를 꼭 보여주고 싶었던 부티란씨의 바람이 이뤄진 친정방문. 친정아버지와 아들 승일이 마주한 순간, 부티란씨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6. 팜티신

성명	팜티신(74)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남자 베트남 현지	촬영일자	2010/08/08
가족구성현황	강진구(남편 '57), 강상운(08)	채취입국연월	2007년 10월
최근 친정 방문 현황		총 친정방문 횟수	0
촬영동행자		남자 참여 현황	2010년 남자



사전주인공 정보

* 자기소개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얼마나 더 오래 사실지 모르니 이 기회에 보고 싶고, 가족 모두가 그립다.

처음에는 빈혈이 심한줄로만 알았는데 임신 6개월이 되면 날 새벽 갑자기 쓰러졌다. 임신하면서 생기는 희귀병(혈소판 감소증)에 걸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없음. 처음에 병원비가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들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의료수급이 되면서 월 200만원, 지금은 건강상태가 좋아지면서 매월 100만원 정도 됨. 남편과 아이에게 건강하지 못한 나 자신이 미안할 뿐임.

남편은 재관 기술자로 일용직 노동자인데 요즘 경기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일이 별로 없는데다 월한만큼 임금도 받지 못해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

늘 몸이 아파서 고향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생각했음

* 추천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통해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있음. 남자 여행이 가족이 함께 하는 첫 여행임

* 신문

출산 이후 혈소판감소증을 알고 있는 팜 티신(36)씨의 하이퐁 친정을 세 살 된 아들과 방문한 강진구(53)씨도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가슴이 뻥뻥하며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 실무자 의견

처음엔 빈혈인줄 알았는데 임신 6개월, 갑자기 쓰러져 혈소판감소증이라는 판정을 받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팜티신씨. 자신이 아파서 미안한 마음이 많으며 한국의 가족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아프니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더 그리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방문을 하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두를 만나서 함박웃음 짓는 팜티신씨를 지켜보는 남편 강진구씨의 마음이 울립니다.

	부부는 어려울때 가장 큰 힘이 되는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팜티신, 강진구씨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부임에 틀림없습니다. 한달에 한번은 입원해서 혈액투석을 해야하는 아내와 그로인한 경제적 고통이 클텐데도 그에게선 희망이란 단어가 피어납니다. 울산에 있는 지인들에게 보살피 줄것을 부탁하긴 했는데 늘 씩씩하게 생활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족스토리	임신 6개월째... 빈혈인 줄만 알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보니 혈소판 감소증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에게 건강하지 못한 자신이 그저 미안할 뿐이라는 팜티신씨. 그러나 아픈 몸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찾아간 친정. 팜티신씨의 밝은 웃음을 보니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남편 강진구씨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17. 호왕띠두란

성명	호왕 띠두란(82)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남자 베트남 현지	촬영일자	2010/08/08
가족구성현황	김순식(남편 '66), 김태근(07), 김태영(09)	재입국연월	2006.04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총 진정 방문 횟수	0
촬영동행자		남자 참여 현황	2010년 남자

2010년 남자



*자기소개서

한국에서 두 아이를 낳고 셋째를 임신 중에 있음.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형편이 어려움. 진정에 다녀오면 그동안 진정 걱정에 우울했던 마음을 말아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거 같음.

* 추천서

최근 진정 아버지가 거동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어머니도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음

* 신문

전남 영암군에서 농사를 짓는 노총각이었던 김씨는 결혼 중개 업소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호왕씨를 만나 혼례를 올린 뒤 한국으로 왔다. 그러곤 어느새 5년이 훌쩍 흘렀지만 빠듯한 살림살이 때문에 여태껏 처가 방문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결국 호왕씨의 셋째 출산을 6개월여 앞두고서야 한국여성재단이 주최하고 삼성생명이 후원한 다문화 가정 진정 방문 프로그램 '2010남자'를 통해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그 사이 가족의 일원이 된 두 살, 세 살배기 아들과 뱃속의 아이까지 함께한 행복한 모국 방문 길이었다

* 파트너단체에서 보내온 내용

이분, 집 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강연회생만 다녀왔어요. 전해들은 이야기...

"일주일만 더 있다가면 안될까요? 아버지의 병세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한국가면 아버지 살아계신 모습 못 볼 것 같은데 며칠만 더..."
병세가 심각해지신 부모님을 두고 다시 떠나와야 하는 딸의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인근의 재래시장. 한두려미의 용안, 망고스틴, 두리안, 용과... 양도 많았지만, 가격도 호텔주변에서 산 것 같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쌔습니다. 눈썹, 몸짓으로 흥정도 하고 엄으로 몇 개 더 얻기도 하고... 그날 밤 숙소에선 열대과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가족스토리	"일주일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의 병세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한국가면 아버지 살아계신 모습 못 볼 것 같은데 며칠만 더..." 병세가 심각해지신 부모님을 두고 다시 떠나야 하는 딸의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18. 팜티누옌

성명	팜 티누옌(이지현)('85)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남자 베트남 현지	촬영일자	2010/08/10
가족구성현황	장정환(남편 '69), 장병준(07), 장병지('08)	재입국년월	2005.11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총 진정 방문 횟수	0
촬영동행자	명진숙, 김은경	남자 참여 현황	2010년 남자



* 추천서

남편은 건축 설비일을 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많지 않아 수입이 넉넉지 않음.
한국어를 '이지현'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학습 외에 검정고시 학습을 받아 초등학교를 취득. 현재 중등과정 시험을 대비하고 있음.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는게 꿈임. 한국으로 시집오는 베트남 친구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음

2005년 한국에 처음왔을 때 12월이 되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나무들이 모두 죽었다고 깜짝 놀라며 나무도 죽고 못 사는 이곳에 내가 어떻게 사나하며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음.

* 결과보고서

사이공 배를 타고 예쁜 볼빛도 보고 맛있는 저녁도 먹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사람이지만, 베트남에 이런 구경 처음이예요.

* 촬영 동행 실무자

4시간~5시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는 컨터지역. 이곳은 호치민 아래 남부지역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이동하여 정오가 지나서야 겨우 출발한 촬영팀은 공항에서 비를 만났던 건 그날 하루의 고생을 예견해서였을까요? 차를 타고 4시간쯤 지났을까. 강을 건너기 위해 차를 큰 배에 싣고 이동합니다. 그야말로 산넘고 물 건너입니다. 6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도착한 팜티누옌씨의 덕에서는 한국손님을 기다린 얼굴의 반가움이 가득입니다. 그간의 고생도 스르르 녹습니다. 아이는 저녁때가 되어 지쳐 잠이 들어버려 안타까웠지만, 함께 촬영하고자 모인 가족들의 신나는 표정에 땀달아 해가 질까 노심초사 행복한 표정을 담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시골의 비포장도로로 불빛을 보기 힘들 정도로 캄캄합니다. 가끔은 비도 오고 하면 길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운전기사님의 말씀에 '에이~ 설마요' 했지만, 그 길을 따라, 먼길을 돌아 돌아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일군 가족들의 용기와 사랑이 더욱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스토리

4시간~5시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는 컨터지역. 이곳은 호치민 아래 남부지역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차를 타고 4시간쯤 지났을까. 강을 건너기 위해 차를 큰 배에 싣고 이동합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입니다. 6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도착한 팜티누옌씨의 덕에서는 한국손님을 기다린 얼굴의 반가움이 가득입니다. 그간의 고생도 스르르 녹습니다. 함께 촬영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은 신나면서도 해가 질까 노심초사하는 행복한 표정이 얼굴 가득입니다. 돌아오는 길, 시골의 비포장도로로 불빛을 보기 힘들 정도로 캄캄합니다. 가끔은 비도 오고하면 길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운전기사님의 말씀에 '에이~ 설마요' 했지만, 그 길을 따라, 먼 길을 돌아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일군 가족들의 용기와 사랑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19. 용원미토

성명	용원 미토(87)	출산국	베트남
촬영지	자온도	촬영일자	2010/10/09
가족구성현황	박정호(남편 '72), 박대선(자녀 '07)	체류입국연월	2005.11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총 진정 방문 횟수	0
촬영동행자	최경진	남자 참여 현황	2010년 남자



용원미토, 용원미토의 자녀 박대선의 친구인 박호은, 옆집 금잔디아, 용우네디딤꿍은 서로 아는 사이. 한 동네에 살며, 모두 사진촬영함

* 촬영 동행 실무자

용원미토 씨 : 한국 입국 5년째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하여 박정호씨와 전라남도 자온도에서 결혼 생활 시작함. 5년째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음. 용원미토씨는 아직 한국인으로 귀하 하지 않았음. 외국인 등록으로 자주 출입국 관리소를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아직 귀하의 시기를 보고 있음. 용원미토씨는 자온도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중 입국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일명 '왕언니'로 베트남 이주여성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음. 처음 섬에 들어와 힘들어하거나, 남편과 싸움이 있거나, 적응하기 어려울 때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

박정호 씨 : 사냥이 취미고 박정호씨는 아버지를 이어 자온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 1만 4000명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박정호씨는 솔로우시티 농업 대학을 다니면서 무농약 벼농사를 시도하고 있으며, 건강에 좋고 환경에 좋은 무농약 친환경 농사를 통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음. 그에게 있어 희망은 야채 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 아직 갈아야 할 빛이 있지만, 무농약 친환경 쌀, 대파, 양파 재배를 통해 빛도 밝고, 3년 후에는 둘째도 가질 거라는 희망이 있음

시아머니, 시아버지 : 대대로 자온도에서 살아온 두 부부는 농사지를 땅과 집을 박정호씨에게 물려주고, 박정호씨 덕 근처 5분거리에서 살고 있음. 며느리 자랑을 해달라는 질문에 신이 나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똑똑하고 착한 우리 며느리" 라고 자랑함. "내가 저 아이(용원미토씨)의 친정 식구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일꺼야. 저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어, 사랑을 많이 받고, 교육을 잘받았을꺼야."라고 덧붙임. 시어머니는 용원미토씨만 보면 웃음이 나온다고 말했음

촬영 1 : 용원미토의 집에서

가족스토리	촬영 2 : 동네 돌담앞에서 촬영 3 : 농사 짓는 부부와 대선이 촬영 4 : 두오뒷볼 바다앞에서 * 추천서 용원미토는 베트남에서 자온도로 시집 온 첫 번째 결혼이주여성임. 이제는 결혼이주여성이 몇몇 되지만, 용원미토가 시집을 때는 이주여성이 없어서 매우 외로웠음. 연사무소에서 국제결혼가족 가정방문을 할 때나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통역을 요청하면 바쁜시간을 쪼개 늘 흔쾌히 도움을 주었음. * 현장 동행 실무자 이 가족은 무엇보다 용원미토씨가 자온도의 이주여성의 '왕언니'로 전통적인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이라는 점, 박대선씨네 가족(시아버님, 시어머니)이 용원미토씨를 자랑스러워하며 자국 문화에 대한 인정과 교육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한 웃음이 매력적인 박정호씨가 반갑게 맞아준 자온도. 가을녘의 황금물결이 살아 숨쉬는 듯한 기운을 느끼며 만난 용원미토씨 가족은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갈 정도로 밝은 기운이 넘치는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연신 용원미토씨를 칭찬하며 '보기만 해도 좋아 웃음이 난다'고 할 정도이니, 그 기운이 사진을 찍는 우리에게까지 전 달되는건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자온도에 처음 시집온 결혼이주여성으로 이제는 이주여성들의 '왕언니'로 불리울만큼 함께 도와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어찌 마음의 감탄을 안할 수 있을까요. 동네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돌담길, 두오뒷볼 바다 등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했지만, 가장 빛났것은 이들의 훈훈한 정이었습니다. 아직도 것가에 대선이의 '까르르'하고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며느리 자랑을 해달라는 질문에 신이 나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똑똑하고 착한 우리 며느리... 내가 저 아이의 친정 식구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일꺼야. 저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어, 사랑을 많이 받고, 교육을 잘 받았을 거야"라며 연신 자랑하시는 시어머니. 아니나 다를까 용원미토씨는 자온도로 시집온 '왕언니'로 불릴 정도로 결혼이주여성들을 돕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20. 박효은(옹원미토의 남편 박정호의 친구)

성명	박효은	출신국	한국
촬영지	자온도	촬영일자	2010/10/09
가족구성현황		재입국년월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총 진정 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최경진	남자 참여 현황	비참여자
사진주인공 정보	옹원미토, 옹원미토의 자녀 박대선의 친구인 박효은, 옆집 금잔디아, 옹우네디밋명은 서로 아는 사이. 한 동네에 살며, 모두 사진촬영함 * 촬영 동행 실무자 대선의 가장 친한 친구로, 중국결혼이주여성의 자녀임. 어머니는 서울에서 따로 살면서 식당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고,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다고 함		
가족 스토리	옹원미토씨의 아들 대선의 가장 친한 친구 박효은군. 박효은군도 어머니가 중국분으로 다문화가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식당일을 하며 돈을 버느라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박효은군이 언제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함께 그날을 고대해봅니다.		

21. 금잔디아

성명	금잔디아	출신국	캄보디아
촬영지	자온도	촬영일자	2010/10/09
가족구성현황	자녀 2	재입국년월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총 진정 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최경진	남자 참여 현황	비참여자
사진주인공 정보	옹원미토, 옹원미토의 자녀 박대선의 친구인 박효은, 옆집 금잔디아, 옹우네디밋명은 서로 아는 사이. 한 동네에 살며, 모두 사진촬영함 * 촬영 동행 실무자 옹원미토씨 옆집 금잔디아(캄잔디아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와 두 자녀 : 수줍음이 많은 금잔디아는 한국에 온지 3년째 되었고 자녀 둘을 낳았음. 금잔디아와 옹원미토씨의 집 안과 먼 친척관계임. 서로 국적과 문화가 다르지만 한국말에 이주해온 이주여성으로써, 서로 언니 동생 처럼 도우며 살고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이라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지만 '공통어'인 한국어로 소통함		
가족 스토리	한국에 온지 3년 되었다며 수줍게 웃는 금잔디아씨. 옹원미토씨와 서로 국적과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 친자매처럼 도우며 삽니다. 국적이 다른 이들이 대화하는 방법. 바로 '공통어'인 한국어라고 합니다.		

22. 용우네디딤땅

성명	용우네디딤땅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자은도	촬영일자	2010/10/09
가족구성현황		채워입국년월	
최근 친정 방문 현황		총 친정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최경진	남자 참여 현황	비참여자
사진주인공 정보	용원미토, 용원미토의 자녀 박대선의 친구인 박효은, 열집 금잔디아, 용우네디딤땅은 서로 아는 사이. 한 동네에 살며, 모두 사진촬영함		
가족 스토리	한국에 온지 3년 되었다며 수줍게 웃는 금잔디아씨. 용원미토씨와 서로 국적과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 친자매처럼 도우며 삽니다. 국적이 다른 이들이 대화하는 방법. 바로 '공통어'인 한국어라고 합니다. -> 사진이 용우네디딤땅씨를 포함해서 함께 찍은 것이라면, 상기 문장에 용우네디딤땅씨 추가해서 사용		

23. 레티예넨(여민경)

성명	레티예넨(여민경)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삼양동 검은모래 해수욕장 앞 공밭, 감골농장	촬영일자	2010/11/01
가족구성현황	고경훈(남편 당시 40세), 고성현, 고민길(자녀), 고희선(시아버지 71), 이군자(시아머니(71살))	채워입국년월	
최근 친정 방문 현황		총 친정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명진숙, 최경진	남자 참여 현황	비참여자
사진주인공 정보	* 파트너단체에서 보내온 내용 여민경씨는 육처럼 밝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본국의 이름을 따서, 여민경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음. 결혼 7년차인 부부는 동네에서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함. 여민경씨 없으면 못산다고 말하는 시어머니 촬영장소 : 삼양동 검은모래 해수욕장 앞 공밭 -> 감골농장(3분거리) 이동 참여자 : 고경훈 40세 여민경(필리핀 결혼이주여성, 28세, 레티예넨) 고성현7살, 고민길4살, 고경훈씨 아버지 고희선 71살, 어머니 이군자 71살 방문 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공밭에서 수확 후 떨어진 콩을 줌과 있었음. 현재 고경훈씨는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음		
가족 스토리	'육처럼 밝아라'라는 뜻을 가진 모국의 레티예넨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여민경. 이름만큼이나 여민경씨는 동네에서 현명하고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24. 비비씨도리집(박은주)

성명	비비씨도리집(박은주)	출신국	몽골
촬영지		촬영일자	2010/11/01
가족구성현황	강명수(남편), 자녀	채워입국년월	
최근 친정 방문 현황		중 친정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명진숙, 최경진	남자 참여 현황	비참여자
사진주인공 정보	* 촬영 동행 실무자 시집을 오기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어린시절, 고향생각, 왜 시집을 오게 되었나 비비씨도리집씨는 몽골에서 한국식당에서 일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강명수 님을 만나 결혼하게 됨. 결혼하면서, 몽골의 한국식당 주인(양아버지)의 성을 따서 박은주라는 이름을 갖게 됨. 한국의 생활: 한국에서의 불행과 행복의 순간들 둘째 임신 중인 박은주씨는 '좋은 며느리'로 소문이 자자하고, 이웃에 다문화 가족이 늘고 있음. 앞집 뒷집에 결혼한지 1달, 3달된 다문화가족이 있음. 진정선 님은 제사 문화 등이 다르지만 워낙 열심히 하는 며느리 모습에 감동한다고 말하며, 무뚝뚝한 아들보다 함께 수다도 떨고 야양도 떠는 며느리가 좋다고 말한다. 이철이는 외할머니(양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할아버지 밖에 없음. 외할아버지는 몽골에서 한식당을 하시는 한국인으로 이철이를 사진으로만 보고 매우 보고 싶어함. 두 부부는 둘째를 낳고 몽골(진정)에 다녀올 예정임. 이철이는 이모가 만들어준 몽골식 털조끼를 입고 있었음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생각, 특이사연 제주도에는 몽골 지배의 역사로 인해 몽골년이라는 욕이 있음. 여성에게 하는 최고의 욕이었던 몽골년이라는 욕이 있었다고 함. 촬영에피소드: 참여자: 강명수(42세, 포크레인 운전사) 박은주(몽골, 몽골어를 비비씨도리집, 26세, 현재 둘째 임신 만삭) 강이철(12개월) 이철이 할머니 진정선(71세) # 집앞을 지나가는 율령길에서 사진찍음 # 집안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노는 모습 촬영방문한 날은 공교롭게도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음. * 촬영 동행 실무자 강명수 박은주 가족: 이철이가 입고 있던 몽골옷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가님도 사진으로 남기신 것 같은데.. 제주도가 고려시대 몽골 지배를 받았기에 몽골에 대해 비하하고 미워하는 전통이 있대요. 그 전통에도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이철이가 입고 있던 몽골 옷은 인식, 문화가 융합되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스토리	100년간 몽골 지배로 지속되었던 제주도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욕으로 '몽골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젠 앞집과 뒷집 모두 다문화가족이 있을 정도로 제주도도 '다문화도'가 되었습니다. 몽골에 사는 이모가 만들어준 몽골식 털조끼를 입고 있는 이철이는 동생이 태어나면 몽골에 다녀올 거라는 아버지의 말에 한껏 들뜬 표정입니다.
-------	--

25. 비수빈

성명	비수빈	출신국	필리핀
촬영지		촬영일자	2010/11/01
가족구성현황	손상동(남편), 손은미, 손현규(자녀)	재입국년월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총 진정 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명진숙, 최경진	남자 참여 현황	2007 남자
사진주인공 정보	* 촬영 동행한 실무자 한국의 생활: 한국에서의 불행과 행복의 순간들 결혼 15년차에 있는 손상동, 비수빈님은 결혼 후 경기도에서 살다가 10년전에 제주도에 이주하였다. 제주도에서 현재 손상동님은 제주다문화가정센터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복지 등을 위해 애쓰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부부는 집 용담2동에 살고 있으며 집 근처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살고 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생각, 특이사연 비교적 오랜 결혼 년차인 두 부부는 다문화 가정 2세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한다. 그래서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이 돈을 벌거나 집에서 가정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이라고 말한다.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특히 아이와 엄마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촬영에피소드: 촬영을 수락하기까지의 과정, 촬영장의 특이사항,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수와 웃음 등 참여자(촬영 당시 나이): 손상동(00살)비수빈(35살)손은미(14살, 중학교 1학년)손현규(초등학교 5학년 12살) 이 가족은 집 근처 제주 용두암에서 촬영을 하였다. 개량한복을 자주 입는다 부부는 촬영때도 개량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비수빈씨도 굉장히 편안해 보였다. 비수빈씨는 국적획득을 하면서 제주'비'씨로 새로운 성을 만들었다. * 촬영 동행 실무자 비수빈씨네가족: 이주여성 비수빈씨가 제주도에 이주하여 제주'비'씨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점, 새로운 부리와 역사를 만들었듯 한국역사에도 많은 흐름과 변화 이주과 지금을 만들어 내었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스토리	개량한복을 입고 촬영팀을 맞이한 비수빈씨 부부, 비수빈씨는 국적을 취득하면서 제주 '비'씨로 새로운 성까지 만들었습니다. 비수빈씨는 엄마와 아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26. 김혜정(당티타이엔)

성명	김혜정(당티타이엔)	출신국	필리핀
촬영지	강원도 횡성	촬영일자	2011/01/22
가족구성현황		재입국년월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총 진정 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명진숙, 김은경	남자 참여 현황	비참여자
사진주인공 정보	* 촬영 동행 실무자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이었음(겨울 풍경) 동네를 다니다가 초록빛 대문집에 들어가니, 다문화가정의 큰언니 역할도 하면서 집안을 보살피는 다문화가정의 모습이 있었음. 날이 추워서 사진을 찍을때도 손녀를 돌보고자 하는 할머니와 사진을 찍기 싫어 도망다녔던 아이의 모습 * 파트너단체에서 보내온 내용 당티타이엔은 한국에 2005년에 시집와서 올해로 7년이 되었다. 7살인 딸과 5살인 아들이 있으며, 남편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당티타이엔은 한국에 살면서 김혜정으로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김혜정으로 한국이름으로 바꾸면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또한 현재는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음식점 '다림촌'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가정 경제의 도움이 되고자 한다. 김혜정씨는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한 순간들이라고 말한다.		
가족스토리	한가득 쌓인 눈 때문이었을까요. 유독 눈에 흰 초록빛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혜정씨와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깁니다. 사진 찍기 싫다며 도망 다니는 손녀가 감기 걸릴까 할머니는 노심초사입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며 다문화음식점 '다림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정씨는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서 행복한 순간들'이라며 웃습니다.		

27. 가와비따후미코

성명	가와비따후미코	출신국	일본
촬영지	강원도 횡성	촬영일자	2011/01/22
가족구성현황		재입국년월	2000.11
최근 친정 방문 현황	2005.04	총 친정 방문 횟수	1
촬영동행자	명진숙, 김은경	남자 참여 현황	비참여
사전주인공 정보	* 촬영 동행 실무자 횡성에 '다림촌'이라는 식당을 방문. 실버+다문화로 컨셉으로 동네에 다문화식당을 마련하여 만두국이나 찰국수 등을 메인 재료를 하여 식당을 운영. (이후 여성중앙의 이효재 선생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여 보자기공예 및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조언) 이곳에 식사하러 온 가족과, 직원, 촬영대상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촬영도 진행 * 파트너단체에서 보내온 내용 한국의 생활: 한국에서의 불행과 행복의 순간들 몇 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씩씩하게 딸 2명과 아들 1명을 혼자 키우고 있다. 현재 4년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에 일어강사로 수업을 나가기도 한다. 또한 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일어교육을 하기도 하였으며, 성격이 매우 긍정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이다. 후미코씨는 한국 남편을 만나 결혼 한 것, 예쁜 아들과 딸을 얻은 것, 한국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며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생각, 특이사연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대학에서 일본어학과를 공부하고 있다. 한가정 부모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정신으로 살고 있다. 촬영에피소드: 당일 말과 함께 방문한 후미코씨의 딸은 수줍음 많은 사춘기 소녀로 사진촬영 내내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래도 가족사진이 남는다는 말에 함께 촬영을 진행했으며, 후미코씨는 가족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진작가님이 촬영해주신다는 점에 감사함을 여러번 표시했다.		
가족 스토리	몇 년 전 남편이 하늘로 떠나갔다는 가와비따후미코씨. 세 명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에서 일본어학과를 다니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일어교육 강사로 열심히입니다. 당찬 여성인줄로만 알았는데 카메라를 들이대자 수줍어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사춘기 소녀입니다.		

28. 천다 사크리스탄 주아완

성명	천다 사크리스탄 주아완	출신국	필리핀
촬영지	강원도 횡성	촬영일자	2011/01/22
가족구성현황	임경우(남편)	재입국년월	
최근 친정 방문 현황		총 친정 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명진숙, 김은경	남자 참여 현황	비참여
사전주인공 정보	* 파트너단체에서 보내온 내용 한국의 생활: 한국에서의 불행과 행복의 순간들 결혼 16년차에 되었으며 원주시에 살다가 남편의 직장 때문에 횡성군 둔내면으로 이사를 갔다. 천다씨는 현재 우천면에 있는 우유공장에 일하고 있으며, 성격이 매우 밝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일하는 공장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센터에서 한국무용 및 필리핀 무용을 배워 무용단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결혼이민자 무용단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남편의 적극적인 내조로 이렇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촬영에피소드: 그 날은 날씨가 매우 추웠지만, 가족들이 정말 즐거워했다. 당일 다림촌에서 가장 먼저 만났던 가족. 가족사진촬영이라는 말을 듣고, 다림촌으로 먼저 달려와 반갑게 맞아주심.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밝은 모습의 천다씨 덕분에 웃음 일이 많았고, 다림촌 식당 안과 눈에 온 다림촌 밖에서 함께 사진촬영을 진행하였다.		
가족 스토리	촬영팀이 왔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달려온 천다씨와 가족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있는 결혼이민자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천다씨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내조한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아이들과 천다씨의 밝은 웃음 덕분에 촬영팀도 덩달아 웃습니다.		

29. 원티워

성명	원티워	출신국	필리핀
촬영지	강원도 횡성	촬영일자	2011/01/22
가족구성현황		재류입국년월	
최근 친정 방문 현황		총 친정 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명진숙, 김은경	남자 참여 현황	비참여
사진주인공 정보	* 파트너단체에서 보내온 내용 한국의 생활: 한국에서의 불행과 행복의 순간들 2007년에 한국에 시집오면서 예쁜 아들을 낳았고, 지금은 아들이 4살이라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원티워씨는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 얼굴이 예쁘고, 베트남에 있었을 때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 등에 관심이 많았으며 꾸미기를 좋아한다. 한국에 와서 예쁜 아들을 낳은 것, 센터를 통해 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함께 정보도 공유하며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생각, 특이사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살면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촬영에피소드: 촬영하면서도 네일아트한 자신의 손을 보여주며 자부심을 가졌던 원티워씨는 용우예티한씨 집에 놀러와서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집에서도 촬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안타까워하면서도 수줍음에 말을 하지 못한 원티워씨의 수줍은 표정이 생각난다.		
가족스토리	워낙 어렸을 때부터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에 관심이 많았다는 원티워씨는 촬영팀을 보자 네일아트를 한 자신의 손을 보여줍니다. 한국에 와서 예쁜 아들을 낳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으로 시집온 모국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며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요즘, 모든 것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친구인 용우예티한씨가 집에서 촬영을 하자 자신의 집에서도 하고 싶은데 수줍어 말을 못하는 원티워씨의 얼굴이 촬영을 끝내고 돌아오는 내내 잊히지 않습니다.		

30. 김이슬

성명	김이슬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강원도 횡성	촬영일자	2011/01/22
가족구성현황	김종신(남편)	재류입국년월	
최근 친정 방문 현황		총 친정 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명진숙, 김은경	남자 참여 현황	비참여
사진주인공 정보	* 파트너단체에서 보내온 내용 한국의 생활: 한국에서의 불행과 행복의 순간들 김이슬은 2004년에 한국으로 시집와서 동직한 남편을 잘 만나서 예쁜 두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횡성읍에 살다고 우천면으로 이사 갔으며, 찬다와 함께 센터를 통해 한국무용을 배워서 필리핀 무용단으로 활동을 하였다. 얼마 전에는 군청에서 지원하는 운전면허지원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면허증을 따자마자 남편이 기뻐하여 예쁜 차를 사줘서 요즘은 차타고 놀러가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한다. 다른 필리핀 분들과 사이가 좋고 애교가 많으며, 노래도 잘 해 행사나 장기자랑에 나가 상을 타고온 한 다. 이렇게 재미있는 한국생활이 행복하다고 한다.		
가족스토리	군청의 지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자 남편은 뭘 듯이 기뻐하며 예쁜 차를 사줬습니다. 요즘은 차타고 놀러가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 김이슬씨는 장기자랑에 나가 상을 타고 찬다씨와 무용단에서 활동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이슬씨의 매력은 넘치는 애교! 남편 김종신씨는 김이슬씨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31. 용우연티한

성명	용우연티한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강원도 횡성	촬영일자	2011/01/22
가족구성현황		재입국년월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총 진정 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명진숙, 김은경	남자 참여 현황	비참여
사진주인공 정보	* 파트너단체가 보내온 내용 한국의 생활: 한국에서의 불행과 행복의 순간들 한국에 2005년에 시집와서 올해로 8년이 되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도 많이 서툴고,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4년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 하고 있다. 별명이 '복순이' 일 정도로 매사에 똑 소리 나게 잘 하며 직장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으며, 한국 아줌마가 다 되었다. 배우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어능력시험 고급을 취득하게 되었다. 시부모와 남편, 자녀에게도 잘 하며 연티한씨는 횡성의 복순이 아줌마로 유명하다. 용우연 티한씨는 동네 이주여성들의 맏언니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생각, 특이사항 모든 것은 자신이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촬영에피소드: 촬영을 수락하기까지의 과정, 촬영장의 특이사항, 촬영장에서 있었던 실수와 웃음 등 초록색 대문이 인상적인 예쁜 시골집 안주인. 이 동네 맏언니로 예쁜 시골집에는 동네의 이주여성들이 다함께 모이기 일쑤. 이날도 촬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친구들이 함께 했다. 아이들은 사진이 어색해서 처음에는 찍기가 어려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사코 '사진 찍어보자~ 작가님 찍어주시는데, 포즈 취해봐~' 하며 아이들을 달랬다. 예쁜 아이들의 모습이 잘 담겼으면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한껏 느껴졌다.		
가족스토리	직장 동료들로부터 '한국 아줌마'가 다되었다는 말을 듣는 용우연티한씨는 한국어능력시험을 고급으로 취득할 정도로 똑순이입니다. 화통한 성격에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는 용우연티한씨의 집은 촬영을 구경하러 온 동네 친구들로 북적입니다. 그 속에서 어색한 표정을 짓는 아이들에게 "사진 찍어보자~ 작가님 찍어주시는데, 포즈 취해봐"라며 손자 손녀들의 예쁜 모습이 담길길 바라는 할아버지가 열심히 아이들을 다독입니다.		

32. 용우연티베마이

성명	용우연티베마이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강원도 횡성	촬영일자	2011/01/22
가족구성현황		재입국년월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총 진정 방문 횟수	
촬영동행자	명진숙, 김은경	남자 참여 현황	비참여
사진주인공 정보	* 파트너단체에서 보내온 내용 시집을 오기까지: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린시절, 고향생각, 왜 시집을 오게 되었나 용우연티베마이는 용우연티한의 친동생으로 언니가 먼저 한국에 시집을 와서 생활하다가, 연티한 남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에 시집을 오게 되었다. 낯선 한국 땅에 친언니와 가까이 살게 되어 서로 의지가 되며 외롭지 않다고 한다. 한국의 생활: 한국에서의 불행과 행복의 순간들 티베마이의 남편은 매우 착하다. 한국에 시집와서 든든한 아들을 낳았고, 3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금은 남편의 직장으로 원주로 이사를 갔지만, 원주와 횡성이 가까워 언니와 주말마다 자주 만난다고 한다. 예의가 바르고, 시부모에게 잘 해서 예쁨을 많이 받고 있으며, 티베마이드 센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어도 배우고, 무용도 배워 베트남 무용단으로 활동하였다. 한국에서 잘 정착 한 것, 언니가 가까이 살아 많은 의지가 되는 것, 착한 신랑과 예쁜 아들을 낳은 것, 한국 가족들의 많은 예쁨을 받고 살고 있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촬영에피소드: 용우연티한님의 친동생으로 언니가 먼저 시집오고, 남편의 소개로 한국으로 시집은 용우연티베마이님. 언니 가족이 이미 광광 얻은 겨울 강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함께 촬영하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오셨다. 강가에는 '삼다리'가 멋지게 펼쳐져있어 흰 눈발, 얼은 강가에 삼다리를 배경으로 언니와 친동생 2 가족이 사이좋게 사진을 찍었다.		
가족스토리	용우연티베마이는 먼저 한국으로 시집은 언니와 형부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착한 남편과 친언니 덕분에 낯선 한국 생활이 외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광 얻은 겨울 강가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언니 용우연티한씨의 연락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온 용우연티베마이씨. 흰 눈발이 펼쳐진 배경에 서있는 두 여성의 모습이 끈끈한 자매애가 느껴집니다.		

33. 딥티란

성명	딥티란(88)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남자 베트남 현지	촬영일자	2011/09/25
가족구성현황	정동현(남편 '79), 정소희(08), 정소영(10)	재류입국년월	2007.03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중 진정 방문 횟수	0
촬영동행자	이상덕, 박병현	날자 참여 현황	2011 날자



* 소개서

진정에 잘 계시는지 전화를 드려도 그리움

다른 베트남 친구들이 베트남에 다녀와서 자랑을 할 때마다 저도 부모님 생각이 나 눈물이 남.

*추천서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강사로 활동. 7월부터는 센터 통번역지도사로 근무할 계획

* 신문

한국인과 결혼을 한 친구의 남편을 통해서 회사원인 정동현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현재 전북 익산에 살고 있다. 낯선 땅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 큰 고민이 없었던 것은 남편이 너무 착해 보였기 때문. 진정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한국으로 시집을 가고 싶었고 현재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엄마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두 딸의 미래에 대해서다. 한국말이 서툴다고 또래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학교에 가서 차별을 당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

* 동행했던 파트너단체

딥티란씨는 그 그리움이 진하게 녹아나서인지 진정식구들을 만났을 때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더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가정형편으로 아내를 진정에 보내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마음 한켠에 쌓여있었기 때문인듯 합니다. 딥티란씨는 익산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번역가로 활동하면서 엄마를 달래 두 딸을 예쁘게 키우는 아주진 성격입니다. 정동현씨는 아내에 대한 마음씀씀이가 한없이 큰 것 같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대인관계시 소통에 약간의 어려움과, 질문에 대한 적절한 반응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딥티란씨가 눈치껏 남편을 대변하는듯 대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진주인공
정보

베트남에 입국하여 하루가 지난 시간, 딥티란씨의 진정집을 향해서 고고봉-텔런트 한혜진씨와 조세현사진작가님의 동행으로 진정 가족들과 딥티란씨도 가슴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다고 살짝 말해준터라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알맞게 눈부신 햇살, 초록이 익어가는 나무들, 여기저기 화사하게 피어있는 이팝나무꽃송이들, 이국적인 바람의 내용... 2-3시간은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창밖의 풍경에 눈을 맡기기도 하고, 지금쯤 딥티란씨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진정엄마랑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 아니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을까 생각하며 시골길을 향해서 달렸다. 화보촬영이 있었기 때문에 동행하는 관계자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차랑 두대가 움직여서 점심시간과 잠깐의 휴식시간밖에는 만날 시간이 없어 아쉬움이 컸지만 뽕뽕한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건넬수는 있었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중간에 마셨던 커피는 진하고 달콤하고 향이 풍부해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맛인데, 이주여성분들은 그 커피맛이 얼마나 그리울까 떠오르니 새삼 가슴이 파하기도 했다. 어디 커피뿐일까, 아무리 흥내내어도 고향에서 만들어 먹는 다양한 맛은 아닐테니 음식에 대한 향수가 참 깊겠구나 생각도 든다.

큰 도로를 빠져나가 작은 시골길로, 굽어진 동네로, 논길을 따라 찾아가는데 딥티란씨의 진정집은 보이질 않는다. 동네사람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준다고 하는데 또 아니다.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기웃거리며 드디어 고향마을에 도착. 저 멀리서 환한 웃음을 머금은 딥티란씨가 뛰어나오는데 양볼이 더 빨그레지고 눈안에 반가움이 가득 차있다.

한국의 인기 텔런트가 온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는지 아이들, 아주머니들, 아가씨들, 우르르 한결같이 달려온다. 가족분들이 모두 마당으로 나오시는데 여동생이 딥티란씨와 똑 닮았다. 남동생은 멋있게 생겼고 엄마와 친척분들은 후덕함이 풍겨진다. 아버지는 말을 걸흔시키고 가슴에 품고 살으셨는지 눈속에 아직도 사랑과 그리움이 배어있다. 새로 지은듯한 집은 정갈하고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는 웃음과 말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면서 오후의 시간을 녹여낸다.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에 커다란게 익어가는 파파야 얼굴도 붉게 물들어간다.

한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완전하게 무장해제하는 그분들, 어떤 조건도 어떤 의심도, 어떤 편견도 없이 손을 잡고 웃음으로 언어를 대신하는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이 그곳에 있었다.

달달한 맛을 지닌 열매과일을 나뭇가지 채 꺾어서 잔뜩 집어주는 인심과 연신 먹을것을 내놓으며 먹여보라는 풍성한 마음으로 가슴속에서 감사함이 연신 올라온다.

정동현씨는 처가에서 씨앗달을 잡아줬는지, 아니면 지난밤에 장인과 마신 술 때문인지 얼굴이 더 좋아졌다. 마음이 마냥 흥겨워워 하는것이 눈에 보일정도이다.

가족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내놓고 그림자를 풀어놓고 사랑을 확인하고 열려와 관심을 보여 주는것.

햇살이 옆으로 누워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서로를 바라보는 얼굴은 변함이 없다.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앞으로 진정식구들과의 만남은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지만 그곳에 남겨졌던 그 마음이 당분간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어 건넬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산골오지... 모기도 많고 진흙탕에 배타고 건너는 그런 진정집일까 짐작했었는데 완전 오버했다. 가는길이 무척이나 편안해서 차안에서 수다만 잔뜩 떨고간것 같다.

가 족 스 토 리	저 멀리서 환한 웃음을 머금으며 뛰어나오는 덩티란씨의 양 볼이 더 빨그레 지고 눈 안에 반가움이 가득 차있습니다. 어떤 의심도, 편견도 없이 손을 잡고 웃음으로 촬영팀을 반기는 덩티란씨의 친정가족들은 연신 풍성한 먹물거리를 내놓습니다. 남편 정동현씨는 처가에서 씨암탉을 잡아왔는지 얼굴이 더 좋아 보입니다. 모두가 흥에 겨워 웃는 사이 마당에 심어놓은 파파야 열매도 붉게 물들어갑니다.
-----------	---

34. 부티리엔

성명	부티리엔(85)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남자 베트남 현지	촬영일자	2011/09/26
가족구성현황	김병훈(남편 '64), 김영기(08), 김영준(09)	재입국연월	2007.03
최근 진정 방문 현황		총 진정 방문 횟수	0
촬영동행자	이상덕, 박병현	날자 참여 현황	2011년 날자



*자기소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음

* 신문

리엔씨의 막내 동생 부이 폭양은 선전성 소아마비를 앓고 있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얼마당까지 이동하는 데만 10여분이 걸렸다. 전북 정읍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남편 김병훈씨는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폭양을 위해 한국에서 인상을 정겨갔다.

폭양의 소원은 그림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비가 모자라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 리엔씨는 "다음에 다시 고향을 찾을 기회가 생긴다면 그림책을 들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친정 식구들은 결혼 후 처음 방문한 사위도 반갑게 맞았다. 김씨는 "한국에서 사위가 왔단니까 저녁상에 특식으로 오리백숙이 올라왔다"며 웃었다.

김씨는 "내 아내가 친정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다"며 "자주 왔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어려워 아내에게 미안할 뿐"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 현장에서 알게 된 사실

부티리엔씨와 도엔티화씨가 사돈지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떨어져 살아서, 서로 한국으로 시집간 누나와 언니가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도엔티화씨의 여동생, 부티리엔씨의 남동생이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두분이 친정이 5분-10분 거리라고 해서 가까운 집에 사진촬영을 하고자 방문한 두 곳에 이런 인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정방문을 하면서 도엔티화씨는 자궁외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베트남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부티리엔씨와 남편이신 김병훈씨가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데 가보지도 못해 미안하다고 전화로 확인하셨었거든요. 그 인연 한국에서도 이어지겠지요.

* 촬영 동행한 파트너단체 실무자

동네입구까지 남편과 리엔씨가 마중.

차로 골목입구까지 이동. 놀지 않은 동네의 집담장이 조용하고 깨끗했음

차에 내려 두사람이 겨우 비껴갈만한 좁은 골목길을 두어번 꺾어 작은 마당으로 들어감. 리엔씨의 가족소개가 있으면서 특히 몸이 불편한 여동생을 꼭 안으면서 눈물을 보임. 할아버지를 비롯한 부모님, 동생들 모두 부산하게 손님접대를 위해 왔다갔다 함.

사진주인공
정보

	남편 김병훈씨가 마당 한쪽의 낮은 울타리를 안쪽을 가리키며 장인이 땀을 키워 시장에 내다 팔아 살림에 보탠다고 말해줌. 집안에서 땀을 키운다는 것을 방문자들은 놀랍고 신기해함.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빨래줄과 빨래들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치우지 말라는 작가선생님의 주문. 가족촬영시작 - 넓지 않은 마당을 리엔씨가 여동생을 부축하며 조용히, 천천히 한걸음 한걸음 힘들게 이동하면서 언니인 리엔씨가 눈물을 보임. 순간 모두 정적. 자신도 쓰러질 정도로 마르고 약한 모습인데 힘겹게 동생을 부축하며 옮기는 발걸음이 안쓰럽고 언니의 눈물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숙연해지며 마음 아팠음. 하지만 곧 서로 웃으면서 사진촬영. 울음이 가득한 그녀의 눈과 환한 웃음.. 가까이 사는 친척 할머니 4분이 베트남 전통복이자 일상복을 입고 오셔서 사진촬영. 준비된듯한 할머니들의 모습이 재미있음. 촬영이후 리엔씨는 뒷마당으로 가서 동생을 시켜 과일열매를 따게 하고 손님대접 하느라 분주해짐. 김병훈씨는 매일 저녁이 잔치라며 자신을 현대하는 가족들의 고마움과 처제의 안타까움을 전함. 리엔씨는 미처 정거오지 못했던 문구용품에 대한 아쉬움과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영리한지를 자랑함. 가족모두가 숙소에 집결할 때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인에게 호텔 앞에서 큰절을 올리던 모습이 떠오름. 여동생을 품에 안고 울면서 쉽게 헤어지지 못할. 공항에서도 또 눈물. 다녀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음(바른 부모님 대신에 어린 리엔씨를 키워주다시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 같은 분이라며 애통해 하였음). 어려운 형편에 남편에게 차마 보내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몇 일을 울며 지냄. 이후 친정아버지를 초청. 조금이라도 현지 식구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고 있음. 여전히 어려운 친정식구들과 여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슬퍼함. 가족뿐 아니라 베트남친구들의 어려움도 다 정기려 한다는 남편의 걱정스러운 마음도 잘 다독일줄 아는, 신뢰받는 사랑스러운 아내. 남편 김병훈씨가 큰 형님이 되어 2011 하노이팀은 자주 연락하고 정기는 사이. 지난겨울, 눈 많이 오던 저녁. 군산에서 10가족중 7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즐거운 1박2일을 보냈음. 꽃피는 봄, 그리고 가을날 한번씩 모이기로 하는 등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어가려는 자발적인 노력들이 보기 좋음. *실무자 정보 항상 밝은 부티리엔(이후 리엔)씨지만, 친정에 도착해서 눈물을 여러번 쏟았습니다. 선정성 소아마비를 앓는 동생이 반가워서, 걱정되서,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도 밝은 모습을 보이려는 리엔입니다.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친정에 온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리엔.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조금은 쑥스럽지만, 두 아들과 그리고 남편과 함께 친정에 온 기쁨은 금세 표현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함께 친정방문에 동행한 가족이 근처에 산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사돈지간이었습니다. 하루의 사진촬영이 알게 해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	--

가족 스토리	리엔씨의 막내 여동생 폭양은 선정성 소아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앓는 살림이지만 남편 김병훈씨는 매일 조금씩 돈을 모아 한국에서 인상을 쟁겨왔습니다. 몸이 안 좋은 동생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는 미안함에 부티리엔씨는 동생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연신 눈물을 흘립니다. 친정을 방문한 가족들이 모이는 호텔 앞에서 장인에게 큰 절을 하며 다음의 만남을 기약한 김병훈씨는 요즘 아내의 친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	---

35. 도오티화(도안티호와)

성명	도오티화(도안티호와)	출신국	베트남
촬영지		촬영일자	2011/09/26
가족구성현황	임재수(남편), 임재준, 임재동	체류입국년월	2007.01
최근 친정 방문 현황		총 친정방문 횟수	0
촬영동행자	이상덕, 박병헌	남자 참여 현황	작성내용은 없지만 일정을 보니 2011 남자 현지촬영인듯 함
사진주인공 정보	2011년 남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참고할만한 사연 없음		
윤난영 생	 * 촬영 동행한 파트너단체 실무자 부티리엔(김병훈)씨와 동행하여 방문함. 이웃마을(부티리엔씨)이지만 훨씬 정돈 되어 보이는 동네 분위기 (초록의 이끼가 군데군데 담장에 피어있고 분위기 있을 정도의 높여온 돌담과 집벽이 골목골목 이어져 있음. 골목에서 대문까지 들어가는 입구는 10여미터의 낮은 검은빛의 돌담으로 옆으로 밭의 채소와 꽃들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였음) 런닝바람의 임재수씨 등 편안한 모습으로 가족이 반겨주었고 가족들 소개에 이어 바로 실내로 안내됨. 차려진 간소한 음식을 나누며 집안의 사당, 분위기, 가족, 음식에 대한 얘기들을 작가와 나눔. 새어머니는 부끄러워하고, 다른 동생들은 일하러 나가 조출하게 가족들 사진을 촬영. 아들 한녀석이 사진찍기 싫다 고집부려 결국 못찍음. 방문객 모두 집안의 분위기와 가족들의 모습이 보기좋다 하였음. 다음날 바로 도오티화씨 병원에 입원. 잦아간 병원엔 시장통 같았고 따로 부모님들이 봉투를 준비하여 병원측에 전달한 후에 환자연회를 할 수 있었음. 부모님들이 간호함. 아이들 때문에 임재수씨는 친정집에서 몇 일을 보냄. 하지만 이후 남편은 가족 모두가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마음속의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아 더욱 소중한 관계가 되었다고 감사해함. 하노이 현지에서도 도오티화씨를 염려하는 하노이팀 친구들의 전화, 또 그 남편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며 한국에서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램. 같은날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렵겠다 염려했으나 출국날 웃는 모습으로 도오티화씨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공항으로 나눔, 온가족들과 함께. 이후 고맙다는 전화도 여러 번 있었고, 역시 하노이팀 모임에 참여하여 그때의 일들을 다시 추억함. 몇 일 전에도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다며 안부를 묻는 전화 음. 많이 먹지 않는 아내의 건강을 염려하는 등 일상적인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을 보임.		

가족 스토리	낮은 검은빛의 돌담은 밭의 채소와 꽃들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냅니다. 런닝차림으로 촬영팀을 맞이한 남편 임재수씨를 보니 친정집에 완전히 적응한 모양입니다.
--------	--

전시 내용	작품 인덱스	120cmX165cm/ 30점 내외 60cmX90cm/3점내외	전시작품 관련 소개, 작가소개 등..			
출판 내용	화보집 200page 내외	1200권 예상(하드/소프트) 작품 120cut 내외 프롤로그 에필로그 인덱스	여성재단-500권	후원사-400권	작가-300권	ISBN.판매가격/ 90,000원
	cover	소프트 1000권 하드 200권	여성재단-50권	후원사-100권	작가-50권	
	박스	하드				

예산	전시장 임대	전시장	5일		0	0	
		작품 설치 파티션 설치		미정			
전시 작품제작비	작품 프린트(디지털 Fine Art 프린트)	30점	400,000	12,000,000			
	보존용 코팅	30점	100,000	3,000,000			
	작품 액자	30점	300,000	9,000,000			
	설치 용역비(2인)	설치/철거	600,000	1,200,000	25,200,000		
화보집 출판비용	인쇄,출력비,제본비(소프트)	1000권	30,000	30,000,000			
	인쇄,출력비,제본비(하드)	200권	35,000	7,000,000			
	카피라이트, 칼리그래픽						
	디지털 이미지 리터칭						
	책 봉투	1000권		500,000			
	박스비(하드/ 증정용)	200권	3,000	600,000			
	디자인비		3,000,000	3,000,000	41,100,000		
홍보물 제작	인덱스 프린터	3	60,000	180,000			

	인덱스 프레임	3	100,000	300,000			
	안내 팜플렛	1,000		1,000,000			
	안내 초대장	1,500		600,000			
	포스터	200매		700,000			전국 다문화센터 등에 배포
	DM발송			2,000,000			포스터, 초대장 발송
	웹홍보물 제작			500,000			PC제작 등
	배너 실내용 안내물 설치	5개	100,000	0			
	배너 실내용 안내물 설치	5개	100,000	0			
	옥외 대형 현수막		500,000	0	5,280,000		설치가능
전시 행사비용	행사 진행 도우미	3명*5일	40,000	600,000			일당40,000원
	행사 사진촬영	1명*2일		500,000			
	오프닝_아나운서 진행비			500,000			
	오프닝_케이터링	60명	30,000	1,800,000			오프닝 행사
	오프닝_테이프컷팅식 셋팅			500,000			레드카펫, 오디오, 코사지 등 (요요이벤트(02-433-0669)
	가족 초대비용	34가족		10,000,000			교통,항공,숙식비용
	행사요원 운영비			500,000			통신,교통,식비 등
	행정비용			1,000,000			테이프 컷팅, 홍보관련
	오다오		500,000	0	15,400,000		오프닝 행사
진행비	진행비			5,000,000	5,000,000		여성재단 진행
추가촬영비용							
(연예인+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돌 교통, 식비 등	30	50,000	1,500,000	1,500,000		
	연예인 식비 등	10	200,000	2,000,000	2,000,000		
합계				95,480,000	95,480,000		VAT별도

여성재단 진행비 27,180,000

예산	전시장 임대	전시장 작품 설치 파티션 설치	7일~15일	미정 미정	4,200,000	4,200,000
	전시 작품제작비	작품 프린트(디지털 Fine Art 프린트) 보존용 코팅 작품 액자 설치 용역비(2인)	30점 30점 30점 설치/철거	400,000 100,000 300,000 600,000	12,000,000 3,000,000 9,000,000 1,200,000	25,200,000
	화보집 출판비용	인쇄,출력비,제본비(소프트) 인쇄,출력비,제본비(하드) 카피라이트, 칼리그래픽 디지털 이미지 리터칭 책 봉투 박스비(하드/ 증정용) 디자인비	1000권 200권 1000권 200권	30,000 35,000 3,000 3,000,000	30,000,000 7,000,000 500,000 600,000 3,000,000	41,100,000
	안내용 인쇄물	인덱스 프린터 인덱스 프레임 안내 팜플렛 안내 초대장 베너 실내용 안내물 설치 포스터 옥외 대형 현수막 DM발송	 1,000 1,500 5개 200매	3 3 100,000	60,000 100,000 500,000 600,000 500,000 2,000,000	5,580,000
	전시 행사비용	행사 진행 도우미 행사 사진기록 오프닝 아나운서 진행비 케이블링 오디오 가족 초대비용 행사요원 운영비 행정비용	3명*10일 150명 ()가족	40,000 30,000	1,200,000 500,000 500,000 4,500,000 500,000 10,000,000 500,000 1,000,000	

	홍보비	500,000	19,200,000
	진행비	5,000,000	5,000,000
추가촬영비용	10회 촬영	1,000,000	1,000,000
합계		101,280,000	101,280,000
VAT		10,128,000	
	총 계	111,408,000	

전시장 임대	전시장	5일		0	0
	작품 설치 파티션 설치		미정		
전시 작품제작비	작품 프린트(디지털 Fine Art 프린트)	30점	400,000	12,000,000	
	보존용 코팅	30점	100,000	3,000,000	
	작품 액자	30점	300,000	9,000,000	
	설치 용역비(2인)	설치/철거	600,000	1,200,000	25,200,000
화보집 출판비용	인쇄,출력비,제본비(소프트)	1000권	30,000	30,000,000	
	인쇄,출력비,제본비(하드)	200권	35,000	7,000,000	
	카피라이트, 칼리그래픽				
	디지털 이미지 리터칭				
	책 봉투	1000권		500,000	
	박스비(하드/ 증정용)	200권	3,000	600,000	
	디자인비		3,000,000	3,000,000	41,100,000
홍보물 제작	인덱스 프린터	3	60,000	180,000	
	인덱스 프레임	3	100,000	300,000	
	안내 팜플렛	1,000		1,000,000	
	안내 초대장	1,500		600,000	
	포스터	200매		700,000	
	DM발송			2,000,000	
	웹홍보물 제작			500,000	
	배너 실내용 안내물 설치	5개	100,000	0	
	배너 실내용 안내물 설치	5개	100,000	0	
	옥외 대형 현수막		500,000	0	5,280,000
전시 행사비용	행사 진행 도우미	3명*5일	40,000	600,000	
	행사 사진촬영	1명*2일		500,000	
	오프닝_아나운서 진행비			500,000	
	오프닝_케이터링	60명	30,000	1,800,000	
	오프닝_테이프컷팅식 셋팅 (레드카펫, 오디오, 코사지 등)			500,000	
	가족 초대비용	34가족		10,000,000	
	가족 사진액자 선물	34가족	50,000	1,700,000	
	행사요원 운영비			500,000	
	행정비용			1,000,000	
	오타모		500,000	0	17,100,000
진행비	진행비			5,000,000	5,000,000
추가촬영비용 (연예인+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들 교통, 식비 등	30	50,000	1,500,000	1,500,000
	연예인 식비 등	10	200,000	2,000,000	2,000,000
				97,180,000	97,180,000

	홍보비	500,000	19,200,000
	진행비	5,000,000	5,000,000
추가촬영비용	10회 촬영	1,000,000	1,000,000
합계		101,280,000	101,280,000
VAT		10,128,000	
	총 계	111,408,000	

예산	전시장 임대	전시장 작품 설치 파티션 설치	7일~15일	미정 미정	4,200,000	4,200,000
	전시 작품제작비	작품 프린트(디지털 Fine Art 프린트) 보존용 코팅 작품 액자 설치 용역비(2인)	30점 30점 30점 설치/철거	400,000 100,000 300,000 600,000	12,000,000 3,000,000 9,000,000 1,200,000	25,200,000
	화보집 출판비용	인쇄,출력비,제본비(소프트) 인쇄,출력비,제본비(하드) 카피라이트, 칼리그래픽 디지털 이미지 리터칭 책 봉투 박스비(하드/ 증정용) 디자인비	1000권 200권 1000권 200권	30,000 35,000 3,000 3,000,000	30,000,000 7,000,000 500,000 600,000 3,000,000	41,100,000
	안내용 인쇄물	인덱스 프린터 인덱스 프레임 안내 팜플렛 안내 초대장 베너 실내용 안내물 설치 포스터 옥외 대형 현수막 DM발송	 5개 200매	3 3 1,000 1,500 100,000	60,000 100,000 500,000 600,000 500,000 2,000,000	5,580,000
	전시 행사비용	행사 진행 도우미 행사 사진기록 오프닝 아나운서 진행비 케이블링 오디오 가족 초대비용 행사요원 운영비 행정비용	3명*10일 150명 ()가족	40,000 30,000 10,000,000	1,200,000 500,000 500,000 4,500,000 500,000 500,000 1,000,000	

전시장 임대	전시장 작품 설치 파티션 설치	5일		0	0
			미정		
전시 작품제작비	작품 프린트(디지털 Fine Art 프린트)	30점	400,000	12,000,000	
	보존용 코팅	30점	100,000	3,000,000	
	작품 액자	30점	300,000	9,000,000	
	설치 용역비(2인)	설치/철거	600,000	1,200,000	25,200,000
화보집 출판비용	인쇄,출력비,제본비(소프트)	1000권	30,000	30,000,000	
	인쇄,출력비,제본비(하드)	200권	35,000	7,000,000	
	카피라이트, 칼리그래픽 디지털 이미지 리터칭				
	책 봉투	1000권		500,000	
	박스비(하드/ 증정용)	200권	3,000	600,000	
	디자인비		3,000,000	3,000,000	41,100,000
홍보물 제작	인덱스 프린터	3	60,000	180,000	
	인덱스 프레임	3	100,000	300,000	
	팜플렛, 초대장, 포스터 제작	팜플렛 1,000부, 초대장 1,500부 (봉투포함), 포 스터 200부		4,532,000	
	DM발송			1,000,000	
	웹홍보물 제작			500,000	
	배너 실내용 안내물 설치	5개	100,000	0	
	배너 실내용 안내물 설치	5개	100,000	0	
	옥외 대형 현수막		500,000	0	6,512,000
전시 행사비용	행사 진행 도우미	3명*5일	40,000	600,000	
	행사 사진촬영	1명*2일		500,000	
	오프닝_아나운서 진행비			500,000	
	오프닝_케이터링	60명	30,000	1,800,000	
	오프닝_테이프컷팅식 셋팅 (레드카펫, 오디오, 코사지 등)			500,000	
	가족 초대비용	34가족		10,000,000	
	가족 사진액자 선물	34가족	50,000	1,700,000	
	행사요원 운영비			500,000	
	행정비용			1,000,000	
	오다오		500,000	0	17,100,000
진행비	진행비			5,000,000	5,000,000
추가촬영비용	다문화가정 아이들 교통, 식비 등	30	50,000	1,500,000	1,500,000
	연예인 식비 등	1그룹		1,000,000	1,000,000
				97,412,000	97,412,000
	여성재단 진행 비				30,112,000

조세현 사진전
여성재단-다문화가정

* 가족들에게 전달할 사진+액자 예산에 포함

전시 내용	작품 인덱스	120cmX165cm/ 30점 내외 60cmX90cm/3점내외	전시작품 관련 소개, 작가소개 등..			
출판 내용	화보집 200page 내외	1200권 예상(하드/소프트) 작품 120cut 내외 프롤로그 에필로그 인덱스	여성재단-500권	후원사-400권	작가-300권	ISBN.판매가격/ 90,000원
	cover	소프트 1000권 하드 200권	여성재단-50권	후원사-100권	작가-50권	
	박스	하드				

예산	전시장 임대	전시장	5일		0	0	
		작품 설치 파티션 설치		미정			
전시 작품제작비	작품 프린트(디지털 Fine Art 프린트)	30점	400,000	12,000,000			
	보존용 코팅	30점	100,000	3,000,000			
	작품 액자	30점	300,000	9,000,000			
	설치 용역비(2인)	설치/철거	600,000	1,200,000	25,200,000		
화보집 출판비용	인쇄,출력비,제본비(소프트)	1000권	30,000	30,000,000			
	인쇄,출력비,제본비(하드)	200권	35,000	7,000,000			
	카피라이트, 칼리그래픽						
	디지털 이미지 리터칭						
	책 봉투	1000권		500,000			
	박스비(하드/ 증정용)	200권	3,000	600,000			
	디자인비		3,000,000	3,000,000	41,100,000		
홍보물 제작	인덱스 프린터	3	60,000	180,000			

	인덱스 프레임	3	100,000	300,000			
	안내 팜플렛	1,000		1,000,000			
	안내 초대장	1,500		600,000			
	포스터	200매		700,000			전국 다문화센터 등에 배포
	DM발송			2,000,000			포스터, 초대장 발송
	웹홍보물 제작			500,000			PC제작 등
	배너 실내용 안내물 설치	5개	100,000	0			
	배너 실내용 안내물 설치	5개	100,000	0			
	옥외 대형 현수막		500,000	0	5,280,000		설치가능
전시 행사비용	행사 진행 도우미	3명*5일	40,000	600,000			일당40,000원
	행사 사진촬영	1명*2일		500,000			
	오프닝_아나운서 진행비			500,000			
	오프닝_케이터링	60명	30,000	1,800,000			오프닝 행사
	오프닝_테이프컷팅식 셋팅			500,000			레드카펫, 오디오, 코사지 등 (요요이벤트(02-433-0669)
	가족 초대비용	34가족		10,000,000			교통,항공,숙식비용
	행사요원 운영비			500,000			통신,교통,식비 등
	행정비용			1,000,000			테이프 컷팅, 홍보관련
	오다오		500,000	0	15,400,000		오프닝 행사
진행비	진행비			5,000,000	5,000,000		여성재단 진행
추가촬영비용 (연예인+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들 교통, 식비 등	30	50,000	1,500,000	1,500,000		
	연예인 식비 등	10	200,000	2,000,000	2,000,000		
합계				95,480,000	95,480,000	VAT별도	

여성재단 진행비 27,180,000

20120410

다문화가정사진전- 조세현 선생님 통화내용

○에스티로더 후원요청

- : 사진전 및 여성관련사업 문의(여성가장건강지원사업, 미혼모사업)
- : 지원규모- 4천만원(가족초청행사비용)
- : 기업과는 장기적인 관계를 지양하며 업무 진행

○준비 작업

- : 화보원고-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각 2줄 정도 소개. 가족마다 원고가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다양하게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음. 예를 들어 가족이민역사를 드라이하게 작성하거나 휴먼스토리를 구성하거나 제3자의 입장에서 작성해도 좋음. 또한 가족들이 작성한 편지도 좋고. 환영지원했던 사람들의 느낌을 적어도 좋음

- : 화보- 작가, 이사장, 전문가1인 글 삽입. 다문화전문가 1인이 a4사이즈 1-2페이지 정도의 원고를 부탁. 조형이사장 글에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감사 언급이 있으면 좋겠음

- : 화보만드는 작업 일정이 빠듯. 책을 말리는 시간만 해도 1주일 소요. 어쨌건 진행하려고 함

- : 조세현선생님 귀국(4/19), 출국(4/20 오전), 완전귀국(4/23)
귀국 이후에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

○ MA ⇒ PLS /

예제/연예인

세부업무, 경과리스트

구분	세부내용	조작가님과 확인, 소통내용	진행현황	4/9~4/134/16~4/204/23~4/274/30~5/4
1) 추가촬영: 연예인 촬영	(1) 연예인 섭외(조세현 작가님쪽에서 진행) (2) 다문화가정 아동섭외 (3) 촬영	> 연예인 섭외에 대한 역할분담? 작년에 요청한 사항에 맞춰 진행 5월 초에 촬영 해야함		→ 완료
2) 작품선택 및 설치준비	조세현 작가님 쪽에서 준비	> 재단에서 협조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 설치를 재단에서 해야하는지?		
3) 오픈식&출판기념회 준비	(1) 세부프로그램 기획 (2) 식순에 필요한 장치물, 사진촬영전문가, 케이터링 등 준비 (3) 참석자 리스트화 (4) 참석자 섭외(공문, 초대장 발송, 참석 여부 등)	> 오픈식에 필요한 사항은? > 조작가님 측에서 요청하는 참석자 리스트는?		→ 완료 → 완료
4) 전시	* 조세현 작가님과 협의 (1) 전시를 위한 각종 준비작업 (2) 전시운영 계획(역할분담 등 준비)	> 전시일정 확정 필요 ! <i>전시일정 → 24년도 2월 (4월) 5/30 ~ 6/10</i>		<i>{ 전시일정 - 2월 4일</i>
5) 가족초대	(1) 세부프로그램 기획 (2) 가족 섭외 (3) 서울방문 선물, 차량, 프로그램 진행 관련 준비			→ 완료
6) 홍보물 제작	(1) 현장용: 팜플렛 제작(디자인+인쇄), x 배너/현수막 디자인 (2) 초대장, 포스터 제작(디자인+인쇄) (3) 인덱스 프레임, 인덱스 프린터(* 조세현 작가님과 협의) (4) 언론홍보-보도자료			내용완료 업체섭외, 내육완료 → 완료 구
7) 홍보	(1)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홍보 (2) 초대장, 포스터 발송 (2) 방송, 언론 보도 요청			

세부업무, 경과리스트

구분	세부내용	진행현황	4/9~4/13	4/14/16~4/20	4/23~4/27	4/30~5/4	5/7~5/11	5/14~5/18	5/21~5/25	5/28	5/29
1) 추가촬영: 연예인 촬영	(1) 연예인 섭외(조세현 작가님쪽에서 진행) (2) 다문화가정 아동섭외 (3) 촬영					→ 완료					미정
2) 작품선택 및 설치준비	조세현 작가님 쪽에서 준비										
3) 오픈식&출판기념회 준비	(1) 세부프로그램 기획 (2) 식순에 필요한 장치물, 사진촬영전문가, 케이터링 등 준비 (3) 참석자 리스트화 (4) 참석자 섭외(공문, 초대장 발송, 참석 여부 등)		→ 완료				→ 완료				
4) 전시	* 조세현 작가님과 협의 (1) 전시를 위한 각종 준비작업 (2) 전시운영 계획(역할분담 등 준비)							→ 완료		→ 완료	
5) 가족초대	(1) 세부프로그램 기획 (2) 가족 섭외 (3) 서울방문 선물, 차량, 프로그램 진행 관련 준비		→ 완료				→ 완료				→ 완료
6) 홍보물 제작	(1) 현장용: 팸플렛 제작(디자인+인쇄), x 배너/현수막 디자인 (2) 초대장, 포스터 제작(디자인+인쇄) (3) 인덱스 프레임, 인덱스 프린터(* 조세현 작가님과 협의) (4) 언론홍보-보도자료					내용완료		→ 완료			
					업체섭외, 내용완료	→ 완료					
							구성/내용완료	→ 완료			
7) 홍보	(1)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홍보 (2) 초대장, 포스터 발송 (2) 방송, 언론 보도 요청								→ 완료		→ 완료

예산	전시장 임대	전시장	5일		0	0	
		작품 설치 파티션 설치		마정			
전시 작품제작비	작품 프린트(디지털 Fine Art 프린트)	30점		400,000	12,000,000		
	보존용 코팅	30점		100,000	3,000,000		
	작품 액자	30점		300,000	9,000,000		
	설치 용역비(2인)	설치/철거		600,000	1,200,000	25,200,000	
화보집 출판비용	인쇄,출력비,제본비(소프트)	1000권		30,000	30,000,000		
	인쇄,출력비,제본비(하드)	200권		35,000	7,000,000		
	카피라이트, 칼라그래픽						
	디지털 이미지 리터칭						
	책 봉투	1000권			500,000		
	박스비(하드/ 증정용)	200권		3,000	600,000		
	디자인비			3,000,000	3,000,000	41,100,000	
홍보물 제작	인덱스 프린터	3		60,000	180,000		
	인덱스 프레임	3		100,000	300,000		
	안내 팸플렛	1,000			1,000,000		
	안내 초대장	1,500			600,000		
	포스터	200매			700,000		
	DM발송				2,000,000		
	홍보물 제작				500,000		
	배너-실내용-안내물-설치	5개		100,000	0		
	배너-실내용-안내물-설치	5개		100,000	0		
	옥외-대형-현수막			500,000	0	5,280,000	설치가능
전시 행사비용	행사 진행 도우미	3명*15일		40,000	600,000		일당40,000원
	행사 사진촬영	1명*2일			500,000		
	오프닝_아나운서 진행비				500,000		
	오프닝_케이터링	60명		30,000	1,800,000		오프닝 행사

	오프닝,테이프컷팅식 셋팅			500,000			레드카펫, 오디오, 코사지 등 (요요이벤트(02-433-0669))
	가족 초대비용	34가족		10,000,000			교통,항공,숙식비용
	행사요원 운영비			500,000			통신,교통,식비 등
	행정비용			1,000,000			테이프 컷팅, 홍보관련
	오다순			500,000	0	15,400,000	오프닝 행사
진행비	진행비			5,000,000	5,000,000		여성재단 진행
추가촬영비용 (연예인+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들 교통/ 식비 등	30		50,000	1,500,000	1,500,000	
	연예인 식비 등	10		200,000	2,000,000	2,000,000	
합계				95,480,000	95,480,000		VAT별도

여성재단 진행비 27,180,000

72